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October 27, 2016 Vol. 551

다민족기도회가 10월 23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Heal Our Land(이 땅을 고쳐 주소서)'라는 주제 아래 열렸다.

주여! 회개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애나하임 컨밴션 센터에서 미국의 회개와 부흥 위해 다민족 연합으로 기도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들이 주최한 다민족연합기도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이번에도 지난해와 큰 차이 없이 회개와 회복, 부흥과 선교, 사회정의, 차세대 등의 주제를 놓고 뜨겁게 기도했다. 지난해의 경우 대다수 기도자들이 동성결혼 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낸 데 비해 이번에는 선거에 대한 비상한 기도를 요청했다는 점이 차이였다. 주최 측도 원래 11월로 예정했던 기도회를 선거를 염두에 두고 10월 말로 변경한 바 있다.

선거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한 엄영민 목사(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는 "이번 대통령은 최대 4명까지 연방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미래가 이번 대선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윤우경 집사(오렌지카운티기독교평신도연합회 회장)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꿇는 지도자들을 세워 달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회에서는 여러 다민족 지도자들이 기도를 인도했다. 국가기도의날의 디온 엘모어 목사는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기도했다. 또 전 세계 기독교 박해 문제를 다루는 ICC(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의 제프 킹 대표가 핍박받는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흑인인 프레드 베리 목사가 아주사 부흥운동에 대해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방언으로 기도했다. LA 지역에서 흑인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윌리 홈스 목사는 인종간 화해를 위해 기도했다.

이 시간의 하이라이트는 이집트 목회자 카토 다우드 목사였다. 이집트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는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을 보고하며 "미국이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백년 이상 결코 복음을 들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IS로 인해 복음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는 IS를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다민족 외에 한인 차세대들도 기도를 인도했다. 스티븐 정 목사(리바이벌교회), 제프 현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EM), 김황신 목사(은혜한인교회 EM), 이영복 목사(순 무브먼트), 데니스 콜 전도사(감사한인교회) 등 영어권 차세대 사역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놓고 기도했다.

전체 28명 기도 인도자 가운데 여성은 윤우경 집사 한 명뿐이었다. 대다수는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사역하는 한인 목사들이었다. LA시 내에서 목회하는 경우는 정장수 목사, 엄규서 목사 등 소수였다. 평신도는 6명이었다.

주최 측은 기도회 참석자가 1500~20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최 측은 다수의 정치인들을 초대했으나 오직 영 김 주 하원의원만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 의원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성공적인 의정과 재선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회 중에는 과거 2011년 로즈볼, 2014년 버라이즌 야외극장에서 다민족기도회를 주최했던 라인인더샌드의 리더들을 초대해 감사를 전하는 시간도 있었다.

이 대회를 이끈 대회장 한기홍 목사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부흥이 필요하다"면서 "남가주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셔서 이 땅을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세대 간 단절 낳은 어른 따로·아이 따로 예배

'Think Net, 다음세대를 생각하라' 컨퍼런스 개최

만나컨퍼런스(MC 2016)가 'Think Next, 다음세대를 생각하라'를 주제로 10월 24일 분당 만나교회(담임 김병삼 목사)에서 개최됐다.

만나 컨퍼런스는 만나교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다음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다음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만나교회에서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는 노하우와 리소스들을 한국교회 사역자들과 나누고자 마련됐다.

만나교회는 지난 2014년 미래사역의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 실시했던 M.Vision 프로젝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다음세대' 사역이 성도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오전 첫 번째 주강의는 김병삼 목사가 맡았다. 그는 "다음세대와 어른 세대의 통합이 일어나야 하고, 그 중심은 예배가 돼야 한다"고 밝히며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오히려 세대 간 단절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에 계속]

"십자가를 향한 축복"

아름다운동산교회 개최…이순창 목사 초청 부흥성회

서울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가 아름다운동산교회(담임 최명환 목사) 설립 17주년 부흥성회에서 말씀을 증거했다. 그는 10월 21일~23일(주일)까지 열린 집회 마지막 날 "십자가를 향한 축복(막 8:27~38)"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이다. 주 예수의 날에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고 권면했다.

이순창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교단 내외에서 거론되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이 자리를 고사하며 연신교회의 작은 목사로만 남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카센,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12월 15일(예비지원서[PRE-APPLICATION]은 11월 1일)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이순창 목사(서울 연신교회 담임)가 아름다운동산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순창 목사.

김준식 목사가 그의 저서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다.

이순창 목사 초청 LA 지역 부흥성회

[1면으로부터 계속] 성도 5천 명이 출석하는 이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의 부총회장 출마를 위한 예산까지 세웠지만 이 목사의 불출마 소식을 듣고 이를 미얀마 한센병자 치료와 필리핀 빈민아동 교육 선교에 사용하기로 해 더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한국 전국의 작은 교회를 다니며 사례비 없이 부흥회를 수백 차례 인도했다.

연신교회에서는 그의 열정적 사역에 쉼이 필요하다 판단해 10월 3일부터 29일까지 안식 기간을 주었지만 그는 이 기간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아틀란타교협이 주최한 복음화대회에서 말씀을 전한 후 LA를 방문해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와 나성영락교회, 아름다운동산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다.

김준형 기자

창세기를 바르게 알자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 감사예배

김준식 목사(주예수사랑교회 담임) 저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 감사예배가 10월 22일 저녁 세계아가페선교교회(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열렸다.

강신억 목사(도서출판 아침향기 대표)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이시곤 목사(세계아가페선교교회) 기도, 홍영환 목사(중앙루터교회 담임) 설교(로1:16~17), 김 에스더 집사 특송(주예수사랑교회), 강신택 박사(히-한글성경번역 저술자) 축사, 나 아브라함 장로(종려교회) 서평, 이옥선 장로(세계아가페선교교회)와 이성미 집사(남가주사랑의교회)의 독후감, 저자 김준식 목사 책소개, 강신억 목사 편집자 소감, 김정애 사모 출판 소감 등의 순서로 진행된 후 김상기 목사(사랑장로교회 담임)의 축도를 끝으로 출판 감사예배의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특히 이날 예배에는 수메르어의 세계적 권위자인 강신택 박사가 직접 축사를 전하며 〈창세 원역사의 비밀〉 출판을 축하했다.

한편 김 목사는 지난 2012년 말 문자적 해석에 초점을 맞춘 〈요한계시록의 증언(상·하)〉을 출판한 바 있다.

도서구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213-434-3129

*웹사이트: www.loveofJesuschurch.com

이영인 기자

"구약에서 길을 찾다"

권혁승 교수 초청 구약 성경 세미나

권혁승 교수.

UBM교회(담임 앤드류 김)가 주최하고 기독일보와 Bliss여행사가 후원한 권혁승 교수(서울신학대학교 구약학, 전 부총장) 초청 '구약 성경 세미나'가 "구약에서 길을 찾다" 주제로 10월 22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온종일 UBM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제1강 구약신학이란 무엇인가?, 제2강 이스라엘 신학의 필요성, 제3강 이스라엘 신학의 미래 전망 등으로 세분하여 진행됐다.

한국교회 주도의 '2020 One New Man Councial in Jerusalem'이 추진 중임도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신학생과 목회 후보생 장학후원을 위한 공모전도 같이 진행됐다. 세미나 참여 후 제출된 에세이 중 권 교수가 직접 선정하여 시상한다.

*문의: 714-634-8360

*www.ubmchurch.com

이영인 기자

정기총회를 마친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미총신대 신대원 남가주동문회 정기총회…신임회장 윤태근 목사 선출

재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남가주동문회가 회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5일 오전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혜성 목사)에서 총회를 열고 신임회장단을 인준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이시형 현 회장이 총회에 불참함에 따라,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김혜성 직전 회장이 임시사회를 맡아, 현 수석부회장 윤태근 목사(성촌장로교회 담임)를 회장으로 인준했다.

신임회장으로 사회를 맡은 윤태근 목사는 "한참 후배인 사람을 뽑아주셔서 죄송한 마음이다. 낮은 자세로 개혁신학과 정통보수신학의 기치를 높이드는 동문회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수석부회장에는 표세흥 목사가 인준됐다. 기타 토의에서는 이시영 목사와 원성택 목사를 동문회의에서 영구제명하는 것을 결의했다.

정기총회 앞서 드린 예배는 윤태근 목사의 사회로, 이규만 목사 기도, 표세흥 목사 설교(왕상18:15), 정완기 목사 광고, 한원영 목사 축도 순으로 드려졌다.

모든 순서는 김혜성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인규 기자

골프대회를 준비 중인 새언약학교 교직원들. (정중앙)제이슨 송 교장.

"선교사 자녀 돕기 골프대회"

새언약학교 주최…10월 29일(토) 오후 12시 30분

새언약초중고등학교(New Covenant Academy)가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자선 골프대회를 오는 10월 29일(토) 오후 12시 30분 웨스트리지 골프장에서 연다. 매년 이 학교는 골프대회를 열어 재학생 가운데 선교사 자녀와 목회자 자녀를 돕고 있다. 지난 해에는 146명이 참여한 바 있다. *문의: 213-487-5437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세대 간 단절 낳은 어른 따로·아이 따로 예배

Think Net, 다음세대를 생각하라 컨퍼런스 개최

[1면으로부터 계속]김병삼 목사는 "돌아보면 우리 어린 시절에는 아무리 교회 규모가 커도,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어색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요즘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부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청년부에서 어른 예배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 등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거나 통합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배려가 이질감을 만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는 교육은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교육은 배려가 아니었다"며 "아이들을 배려하다 사사기 시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3세대처럼 신앙의 전통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김병삼 목사는 "또 하나, 한국교회는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돌보지 못한 부담감 때문에 교회로 데려오는 것까지는 참 잘 한다"며 "부모들은 특심한 마음으로 교회학교에 밀어넣고 난 다음 안심하지만, 그렇게 1시간 맡긴다고 신앙교육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신앙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시간은 교회에서의 1시간이 아닌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6일간인데, 우리는 교회에서의 1시간으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긴다"며 "우리는 교회에서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방치해 놓고 있다. 따로 예배를 드리기에,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다 와도 나눌 이야기가 없고 신앙의 공감대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 공동체에서 일어나기에, 세대 간 통합은 예배에서 일어나야 한다"며 "예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배를 놓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김병삼 목사는 "목회철학에 로드맵이 있듯, 설교에도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며 "설교를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음세대까지 고려한 로드맵을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교를 미리 준비하면 교회학교 예배에서도 동일한 맥으로 시작부터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며 "이런 로드맵 없이는 통합교육이나 철학이 있는 교육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강의하고 있는 김병삼 목사.

김 목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통합적 교육과 사고에 대한 고민과 비전들을 함께 나누면 건강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좋은 커리큘럼들을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컨퍼런스에서 이규현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기도는 행사가 아니라 삶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기도사역 컨퍼런스서 '기도' 강조

2016 기도사역 컨퍼런스가 21일 부산 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 목사) 은혜홀에서 개최됐다.

금요철야기도회를 힘 있게 이끌며 수영로교회의 재도약을 주도하고 있는 이규현 목사는 컨퍼런스 오후 강의 '가장 위대한 일, 기도'에서 "왜 기도인가? 기도가 답이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는 매달림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현 목사는 "한국교회는 여러 세미나와 각종 프로그램들 때문에 성도들이 지쳐 있는데,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기도가 약화됐기 때문 아닐까"라며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도 한국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한다, 한국교회나 사회가 분석할수록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희망이 있으니 기도의 동지를 모으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철야기도회를 함께 드리면서 느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현 목사는 "20년간 호주에서 목회하다 돌아오니 한국이 너무 변했다. 기도는 하지만 예전처럼 피 끓는 기도의 열기는 식어진 것 같다"고했다.

특히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인데, 위기 중 위기는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라며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의 현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영권(Lordship)을 잃어버렸다. 안 믿는 이들도 느껴지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한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백성들이 키를 쥐고 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닌가. 이제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진짜'가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각종 방법론과 프로그램을 모두 실시해 봤다. 프로그램은 유행이다. 유행은 지나가는 것"이라며 "그러나 기도는 프로그램도 방법론도 아니다. 기도 없는 프로그램에 열매가 있겠는가. 기도 못 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주일예배와 수요기도회만 강력해도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 있는데, 프로그램에 밀려 기도가 사라졌다. 본질이 약화된 것"이라며 "교회가 이벤트를 해선 안 된다. 기도는 행사가 아니라 삶이다. 기도는 기도이다. 기도는 생명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도는 능력이기에, 소극적으로 기도해선 안 된다. 매달림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너무 잘나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구하고 부르짖고 매달려야 한다. 기도하지 않는 삶이자, 자기 에너지만 빼는 소모전"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지금은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나, 기적이 사라진 시대"라며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응답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불신앙이다. 기도는 '기도나 해 보자'는 말처럼 '마지막 카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금식하는 영성, 순교의 영성, 신부(정결함)의 영성"이라고 역설했다.

이대웅 기자

문화재청,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외 3건 문화재 등록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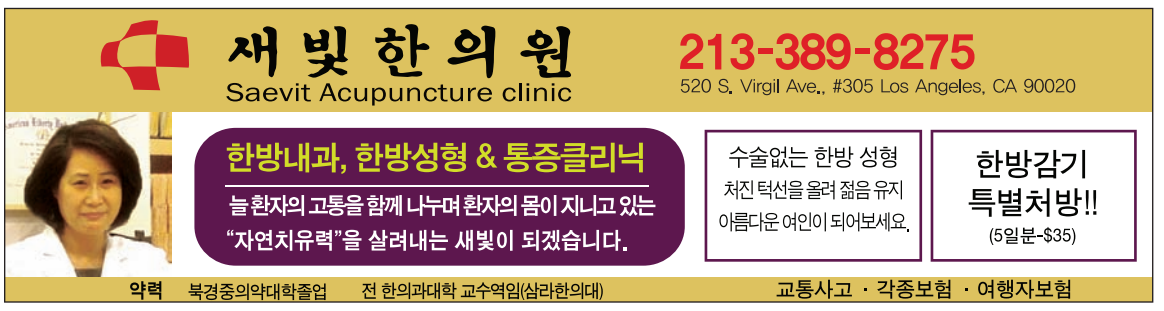
문화재청이 최근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외 3건의 기독교 고서적에 대해 문화재 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먼저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에 대해, 문화재청은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점과 이후 성경 번역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예수성교전서'에 대해서는 단권 성경의 종합본격인 〈예수성교전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고 전하고,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에 대해서는 "이수정이 번역하여 일본에서 출판된 한글과 한자 혼용의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는 일본에서 출판된 최초의 한글 성서이며 국어학적 가치도 크므로 등록 가치가 있다"고 했다.

'구약전서'에 대해서는 "한글로 발행된 최초의 구약전서로 우리나라 개신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나래 기자



제5기 뉴욕-뉴저지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10월 17일~19일까지 뉴저지땅끝교회(담임 유재도 목사)에서 진행됐다.

제5기 뉴욕·뉴저지 목회자 아버지학교

뉴욕·뉴저지 아버지학교 주관…美동부 지역에서는 5년만에 열려

5년만에 진행된 제5기 뉴욕·뉴저지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10월 17일~19일까지 뉴저지 땅끝교회(담임 유재도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뉴저지 목사회 주최, 뉴욕·뉴저지 아버지학교 주관으로 美동부에서는 5년 만에 열린 것으로 2박 3일간 네 번의 만남으로 진행됐다.

강사는 첫 만남(영향력)에 정대성 목사(콜로라도 뉴라이프선교교회 담임)가 둘째 만남(남성)에는 이준성 목사(ANC 온누리교회/ 라티노 담당), 셋째 만남(영성)에는 박형은 목사(LA동양선교교회 담임), 넷째 만남(사명)에는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가 강의를 했다.

이번 아버지학교에는 27명의 목회자들이 등록, 21명이 수료했다.

첫째 날, '아버지에게 편지쓰기' 과제를 받은 목회자들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무슨 편지를 쓰느냐?" 질문을 하기도 했으나 다음 날 "편지를 쓰느라 잠을 설쳤다"면서 "숙제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테이블에서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이번 참석자 중 정광희 목사(뉴저지영광교회 담임)는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민 목회의 어려운 환경에서 환한 웃음으로 섬겨주시는 여러 목사님들의 헌신이 감동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행사 마지막날 강사였던 권준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시애틀 형제교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1만 4천불을 후원했다.

이에 5번째 만남을 사모위로회로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사모위로회는 뉴저지 목사회가 주최하고 아버지학교가 주관하며 뉴저지 교회협의회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뉴저지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제5기 목회자 아버지학교 5번째 만남-사모위로회' 진행위원회를 구성, 추수감사절 이후인 11월 28일(월)과 29일(화)에 1박 2일 일정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이번 목회자 아버지학교 수료자 부부 및 봉사자 부부와 지역의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를 초청할 예정이다.

[뉴욕기독일보]

한영훈 목사(서서울중앙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

아가페선교교회 한영훈 목사 초청 부흥회

아틀란타 아가페선교교회(담임 강진구 목사)가 10월 21일~23일까지 서서울중앙교회 한영훈 목사를 초청해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강진구 목사는 "한영훈 목사를 통해 그동안 말씀에 갈급해 왔던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다.

집회 첫날, 한영훈 목사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다. 이 땅을 살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막히고 안 되는 일도 많다"며 말씀을 이어갔다.

한 목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지는가.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손해보면 풀 수 있다. 가능하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묶였던 매듭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의 종, 즉 목회자와의 관계인데, 마음에 맺히는 것이 없는 방법은 순종을 잘하는 것이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해결하신다. 교인들의 마음에 맺히는 것이 없으려면 목회자에게 순종을 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만 보이면 삶의 매듭이 풀어지게 된다. 모든 관계 속에서도 바로 회개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처음은 먼저 즉각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하나님은 찬송 속에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만날 수 있다.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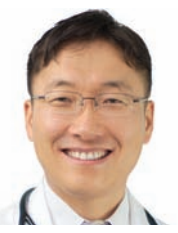
한영훈 목사는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예장 한영총회 총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재미재단법인 세계복음화협의회 운영총재, 한영신학대학교 명예총장이며 서서울중앙교회를 41년간 담임하고 있다.

[아틀란타 윤수영 기자]

조동혁 박사 칼럼 6

조동혁 내과/신장내과



3시간 대기 5분 진료의 진실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병원에서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것이다. 3시간을 기다리고 5분 진료를 했다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대학병원에서는 5~7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이긴 하다.

그래서인지 종종 의사들이 더 많은 수익을 위해 감당하지도 못할 많은 환자를 예약해 놨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예약을 해놓고 그 시간에 진료하지 못할거면 뭐하러 예약을 받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오늘은 왜 자신은 5분 진료밖에 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됐는지에 대해 그 진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 이유는 병원이기 때문이다. 아픈 사람들이 오기 때문이다. 갑자기 아프게 된 사람들은 예약을 하고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픈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며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주, 필자를 찾은 환자 중에서도 오래 기다렸다고 로비에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진료를 받으러 필자와 대면하게 되었을 때, 진료보다 먼저 "이거 너무하는거 아녜요? 2시간이 뭡니까, 두 시간이.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라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낸 후 진료를 받은 환자가 있었다.

필자는 하루에 길어야 5시간 자고(사실 이런 날은 거의 행운에 가까움), 새벽 5시부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진료를 시작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필자도 사람인지라 이러한 누적된 피로를 풀 여유조차 없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 있다보면 지치게 마련이다.

이렇듯 지쳐 있는데 그날 환자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너무나도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

그 환자는 지난 한달동안 외래에 4번이나 온 환자였다. 그런데 예약은 그날 처음으로 하고 온 날이었다. 지난 한달동안 수차례 불쑥불쑥 병원에 나타나 다 죽겠다며 봐달라고 한 환자이다.

심부전에 신부전이 있기에 숨이 쉽게 차고 부종이 잦은 환자였다. 그 환자를 먼저 바로 봐 주었고, 진료를 하고 응급 조치를 하며 앰블란스를 불러 병원에 입원까지 시켰었다. 필자는 외래진료를 마친 후 그 환자를 저녁 8시에도 봤고, 다음 날 새벽 6시에도 봐 주었던 환자이다.

필자가 예약없이 나타난 그 환자가 위독하여 먼저 봐주었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온 다른 환자들은 1시간 이상 진료시간이 지연되었다.

그렇게 한달에도 수 차례 자신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1시간 이상을 더 기다리게 된 사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몸이 회복되어 편하게 예약을 잡고 오고 나서는,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다. 건강이 점차 회복되었거나 만성질환으로 온 환자들은 5분만에도 진료가 끝날 수도 있으나 갑자기 아파 내원한 환자는 30~60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현실이다.

물론 예약시간에 정확하게 맞춰 진료하는 미국인 의사들도 있다. 아무 문제가 없는 환자들은 예약된 시간에 가서 편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아프게 되어 진료를 받을라치면 그 병원측은 예약잡고 오라고 한다. 보통 3주~8주 후에나 예약이 가능한 경우가 다반사다. 못기다리겠으면 응급실로 가라고 할 뿐이다.

자신이 갑자기 아플 때 자신을 바로 봐줄 의사를 원한다면, 그렇게 갑자기 아픈 사람들이 있기에 종종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한다. 내게 불편한 한 두 시간의 기다림이 때로는 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금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서로 배려하는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담임목사 청빙

저희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는 1977년에 창립된 이후 평신도 사역을 극대화 하는 교회,
새로운 예배의 갱신을 꾀하는 교회, 소그룹과 양육 중심의 교회, 1세와 2세가 함께 세워 나가는 교회,
이민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의 목회상을 가지고 이민교회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비전에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 정규신학교(M.Div. 학위 이상)을 졸업하신 분
- 5년 이상의 이민교회 목회 경험(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 PCUSA 소속 및 가입이 가능하신 분
- 미국에서 목회 하시는데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이중언어 구사가 되시는 분

제출서류
- PIF(이력서) PCUSA *개인정보 양식을 다운 받아 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 (PCUSA website http://oga.pcusa.org)
- 추천서 2통(봉인)
- 최종 학력 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사본
- 신앙 고백 및 목회 계획서
- 최근 6개월 내 설교 2회 분(USB 또는 CD)
- 본인 사진

제출마감
2016년 12월 10일(우편 소인)

보내실 곳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Attn. KCPC PNC (Pastor Nominating Committee)
2534 Duluth Highway, Duluth, GA 30097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PCUSA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Ministry Information Form(성직정보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점(下)

창세기 21:1-2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지난주로부터 계속]예전에 모 방송에서 이슬람의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폄하하는 일이 있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여러 목회자들이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틀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근본과 과정 그리고 현실과 미래를 좀 알아보고 연구하면서 분석 비판하는 가운데 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의 복음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정통한 구원의 교리 진리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들에 잘못 휩쓸리는 영혼들이 지옥에 가기 전에 바른 진리의 복음으로 전도해서 구출해야겠다는 전도 사명도 일깨워야 합니다.

3. 육적인 후계자의 만행(蠻行)

AD571년에 메카에서 과부의 유복자로 태어난 마호메트라는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가 그를 임신하여 추장집에서 여러모양으로 일을 도우며 살아 가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그 추장 집에서 추장 부인되는 사람에게 시중들고 살다가 추장 아내의 보살핌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팔레스타인이나 광야나 시리아까지 행상을 했습니다. 행상을 하다가 26살 때 자기보다 15살 많은 과부와 결혼을 합니다. 그 과부의 이름은 카디아입니다. 재산이 많았던 그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다 죽고 딸 한 명만 살았습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전도를 받으며 듣게 되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껏 쫓겨난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면서부터 들어왔었기에 서자 혈통의 자손으로서 서러움과 불만이 쌓여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능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천사 가브엘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예언자가 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는 동네에 가서 예언을 한다고 이말 저말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고향 사람들은 그의 나고 자람을 아는데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그를 도리어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메카에서 쫓겨나고 메디나라는 작은 도시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짓예언자 노릇을 합니다. 고향 메카에서 쫓겨난 그는 AD622년 메디아로 옮겨서 아내의 도움으로 군대를 조직 했습니다. 이 유급 군대를 가지고 기독교와 유대교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정없이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종족들까지 죽이면서 630년에 큰 군대를 조직해 훈련시켜 자신을 쫓아낸 메카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 그 이듬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571년에 태어나 633년 62세에 죽었습니다.

이슬람교는 성경을 근거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만든 코란을 사용합니다. 코란은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뜻은 아랍어로 복종과 평화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가르침에 복종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슬람은 거역하면 죽이고 복종하면 살린다는 것입니다. 코란은 아라비아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114장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90장은 메카시대에 이 사람이 쓴 것이고 24장은 메디아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코란의 내용은 90장은 메카시대에 받은 계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계시가 아니라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알라신의 유일성을 주장했고 사람은 알라에게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과 단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순례도 해야 한다는 것, 성월이라고 해서 7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한 달간 알라신만 경배하는 것으로 지켜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나 시대에 기록된 24장은 예배 단식 순례 성월을 지키게 하면서 민법과 형법을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작두에다가 손목을 잘라 버립니다. 이 율법은 사랑도 긍휼도 은혜도 전혀 없습니다. 이슬람교에는 6대 신조가 있고 5대 실행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6대 신조는 알라신, 천사, 경정(코란), 예언자, 내세를 믿어라, 천명(자신이 기록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해야한다는 것을 만들었고, 5대 실행법은 억지라도 신앙고백은 해야 하고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고 단식도 해야 하고 후사하는 것, 성지순례해야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대 신조와 5대 실행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야 완전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그것은 자신만큼 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경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파가 5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세력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분파로는 씨앗파, 순리파, 세만파, 카마트파, 하시스파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은 분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를 만든 동기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기에 엉터리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속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 세상 많은 종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4. 자유하는 여인의 후손(後孫)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지게 하셔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으로 입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하셨으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22~31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고 되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악에서 해방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코란에는 죄를 용서받는 대안이 없습니다. 불교나 어떤 종교나 죄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많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불교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지금 스님으로 예수 믿고 신학을 한 사람들이 수백여 명 모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창대케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길들이기 위해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세력을 통하여 교회를 그 손아귀에 넣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3년 반 동안 붙여 진짜와 가짜를 저절로 구분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회개하고 구원 얻을 사람을 위해서라고 다니엘서에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은 간질을 앓다 열병으로 죽은 마호메트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알라라는 말은 영어로 god, 즉 그냥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이슬람교는 사람이 만든 엉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고 그분을 통하여 그 구속하신 백성들을 성령을 받게 하심을 보아 참 구속의 교리이며 구원의 진리임을 알아 목숨을 내 걸고 이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여성목사회 창립

오렌지카운티여성목사회는 2016년 8월 30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여성목사회를 조직했다. 2016년 10월 21일 생명수샘물교회(김광자 목사 시무)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임원을 선출했다. 새로운 오렌지카운티한인여성목사회가 회장 이선자 목사를 중심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구제와 선교 및 봉사에 앞장설 것이다.

임원명단

회장: 이선자 목사 / **부회장:** 주재임 목사, 윤에스더 목사, 장혜숙 목사

총무: 이명희 목사 / **서기:** 이경신 목사 / **회계:** 이현욱 목사 / **감사:** 소피아신 목사

이사: 성그레이스 목사, 손미령 목사, 신남식 목사

음악위원장: 정은향 목사 / **청소년분과위원장:** 비비안리 목사

양로사역분과위원장: 전용미 목사 / **선교분과위원장:** 김란이 목사

"유년주일학교 사역자를 모십니다"

본 교회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갈보리 장로교회입니다
"유년주일학교"사역을 사랑과 헌신으로 담당할
Part Time **사역자**를모십니다.

유년주일학교

1. 자격요건
A. 신학교재학중 또는 졸업하신 분
B. 영어설교가 가능하신 분

2. 제출서류
A. 이력서 (사진포함)
B. 본인 신앙고백서

3. 접수안내
A. 보낼곳 : 이메일 12dchung@comcast.net
B. 마감일 : 2016년 10월 30일
C. 문의사항 : 정석표 장로 T(443)243~0061

갈보리장로교회
6800 Loch Raven Blvd., Towson, MD 21286
(담임목사 조 병래)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자격조건)
1. 담임목사 3년 혹은 부목사
   5년이상 경력 있으신 분
2. 신 분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3. 기 타 : 한국어와 영어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가족사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2. 신앙 간증문 : 본인및 사모 가족소개,
   성장과정과 신앙생활, 목회비젼과 철학
3.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CD 또는 DVD 2부
4. 추천서 2부(추천인 밀봉 후 날인요망)
5. 제출일시 : 2016년 10월 10일(월)~11월 5일(토)까지

(제출처)
LA HANMI CHURCH 청빙위원회
전화 : T(626)444-0058-9
주소 : 2727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email: lahanmichurch1@gmail.com
www.lahanmi.com

나성한미교회

• 다문화칼럼(9)

신약성경에서의 나그네와 이방인의 의미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신약성경에서는 구약성경에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관심이 다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사역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심을 보게 된다. 무엇보다 구약성경에서는 "이방인"이나 "나그네"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야기했었다면 신약성경에서는 달리 복음의 대상이었던 불신자들을 "이방인" 혹은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관심이 구약에서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질 복음사역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한 '게르'라고 불리는 이방인이란 뜻의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의미는 상당히 축소되어 '프로세프토(προσήλυτος)'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유대교 개종자"를 이르는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의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 점령군을 가리켜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프로세프토'라는 용어를 종교적인 의미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의미는 다른 종교나 사상을 받아 전환한 개종한 자를 뜻하는 의미였던 것이다.

또 신약성경에서 "나그네"를 지칭하는 단어로 '파로이코스(πάροχος)'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 단어의 의미 또한 일차적으로는 "외국인" 혹은 "외인"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때때로 나그네의 삶이 언제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인 것처럼 다른 의미 즉, "고통"과 "외로움"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그네를 지칭하는 단어로 '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명령은 낯선 나그네를 돌보고 그들의 상처를 '싸메고', '돌보아'주어야 할 실제적인 책임 즉, 다문화 목회와 선교의 책임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또한 외국인과 나그네의 의미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의 "외국인"과 "나그네"의 의미가 타국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시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약성경에서 사용되었던 "이방인" 과 "나그네" 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이 단지 특정 민족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서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는 신약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된 복음 사역과 돌봄 사역의 대상은 구약에서와 달리 그 대상이 "나그네들"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과 종족으로 하는 다문화 목회와 선교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14:6~7)

• 정운길 칼럼(3)

성령의 기쁨으로 마음껏 웃으세요

정 운 길 선교사
실버선교회 국제대표

기쁨은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마음의 본질이고 웃음은 겉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기쁘면 웃음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기쁨은 즐거움을 수반한 감정의 자발적인 표현으로 신체에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이며, 기쁨은 곧 웃음으로 표출되고 웃음은 전이가 잘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하루를 최대한의 기쁨으로 맞이하면 그 날이 살아있는 날로 경축일이 된다.

춘하추동 4계절 피는 꽃은 웃음꽃이며 웃음꽃이야 말로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성령의 웃음은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완전히 기쁨에 몰입되고 압도되어 웃는 웃음이다. 웃음에 대한 많은 격언들이 있어 여기에 모아본다.

독일의 칼 조세프 쿠셀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몸을 아름답게 한다. 웃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미국의 존 메이슨 "웃음은 처방전이 필요없고, 쓴 맛이 없고, 돈이 들지 않는 유일한 약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웃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세계적인 기업 카운슬러인 데브라 밴턴 "최고의 경영자들의 공통점은 유머 감각에 있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한다." 미국의 노먼 커스 "성공한 사람의 85%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며 인간관계의 성공은 바로 유머에 있다." 비슷한 말로 탁월한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에서 좌우되며 인간관계는 얼마나 잘 웃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의 판매 왕 조 기랏 "웃음만이 모든 것을 여는 만능열쇠이다." 노르웨이 속담 "웃는 사람은 산다."

한국 속담 "웃는 집에 만복이 찾아온다!"(笑門 萬福 來),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 한번 늙는다."(一笑 一少, 一怒 一老.

중국 속담 "적게 화내고 많이 웃어라!"(小怒 多笑).

우리에게는 웃음에 대한 두 가지 반대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웃음이 헤프면 안 된다." "웃으면 사람이 가볍게 보인다."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최후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웃음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위 웃음의 격언들을 생각하며 웃음의 긍정적인 면을 중시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항상 웃는 여러분 되길 바란다.

선거와 공적 신앙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정치적 무관심의 대가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이 유명한 구절은 플라톤이 저술한 《공화국》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다.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말에 대한 반론이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말이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푸념 섞인 고백이 될 수 있다. 이 사회의 권력자들이 일반시민의 저편에 있는 항의할 수 없는 강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강자들이 정의를 마음대로 요리하도록 내버려두거나 시민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야말로 상황은 더욱 암담한 상태가 될 뿐이다. 정치적 무관심의 댓가는 함량미달의 정치인을 생산하든지,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리배(謀利輩)의 등장을 허용할 것이다.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는 말 또한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경고이다.

시민으로서 최소한 의무를 다하는 긴급한 일은 11월 8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변에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해야 한다. 국민의 무관심을 자아내어 정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의 손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200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현재까지 17개의 주민발의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더 많은 항목이 올라올 수 있다. 이 모든 발의안은 우리의 삶에 거의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담뱃세 인상, 처방약 가격 제한, 사형제 폐지, 총기규제 강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1회용 비닐봉지 재사용 등은 우리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미국 시민, 캘리포니아 주민이라면, 우리의 선택권을 포기할 수 없다.

신앙은 사적 신앙(private faith)과 공적 신앙(public faith)이 있다. 신앙은 우리의 구원과 인격의 변화 차원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하여 환경, 경제, 정의, 정치, 분배, 인권, 자비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한다. 성경이 적혀지던 시절의 왕정시대를 지나, 종교개혁자들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꾸는 정치적 변화를 선도하였다. 그리고 기독교가 융성하던 영·미권에서,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전통이 열렸다. 참된 신앙은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다.

openstewardship.com

Open Stewardship Foundation

나눔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픈청지기 재단
지원단체 모집
Open Stewardship Foundation

2016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 단체 모집 접수를 시작합니다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은 한인사회와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현 프로그램을 활성 및 확장하기 위해 **[Open Stewardship 재단]**에서 드리는 지원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미주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오픈청지기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 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I 접수마감 : 2016년 11월 30일

openstewardship.com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Open Stewardship Foundation

213.593.4885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

지원금 수혜자는 웹사이트 , 신문광고 및 안내 우편을 통해 발표 됩니다.

2016 마지막 총정리
펄리우드빅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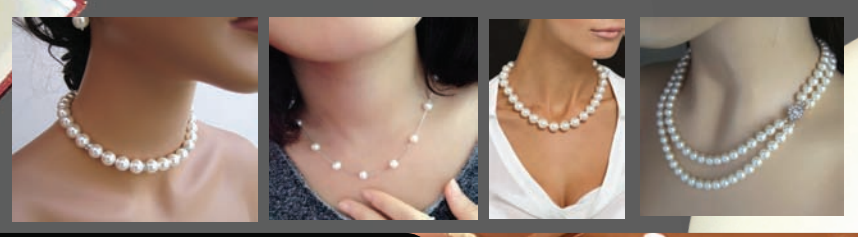
비드목걸이 전품목 할인가격에서 최대 50% 추가세일

가주마켓 California Market 특설매장에서 펼쳐지는 초대박 세일

2016년 진주전문회사 고베펄이 창립 12주년을 맞아 올 한해 미 전역에서 펼쳤던 펄리우드 진주보석쇼가 대단원의 마지막 펄리우드쇼를 개최합니다.
1년중 최대 할인폭을 자랑하는 고베펄의 연말 총결산 진주보석쇼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커(Choker)스타일 진주목걸이 대량 출시 할인판매

Choker스타일이란?: 목을 타이트하게 감싸주어, 패션피플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타일의 진주목걸이



액땜해주고 행운 가져온다는
원형 진주목걸이 인기!

2016 NEW DESIGN

바로크 진주
BAROQUE PEARL
진주의 여왕

진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바로크진주
2016년 신제품을 대거 전시 판매합니다.

고베펄제품은 레이져공법과 수제품으로 서울. 강남고베펄공장에서 세공됩니다. 앞서가는 디자인 정교하고 세련된 세공으로 미국 전지역에서 모든 한인여성들에게 인정 받는 고베펄제품 2016년. 신제품을 이번 펄리우드 쇼 행사에서 만나보세요.

바다의 붉은꽃 홍산호!
각종 유색보석 전시판매!

진주전문회사 고베펄이 2016년 여름맞이 1만여점의 진주보석과 유색보석 홍산호 제품등을 대거 전시 할인 판매합니다. 최대할인을 자랑하는 펄리우드쇼를 놓치지마세요!

HELEN AIKO
최고급 프리미엄 진주반지와
아코야 진주 비드 두줄 비드목걸이

여성의 우아함을 돋보이게하는 진주 비드 제품 전품목 세일 전시판매!

경제적인 가격대 진주 제품부터 최고급 아코야진주까지 일본공법 한국세공 고베펄 진주비드제품을 만나보세요.

가주마켓 고베펄 특설매장
행사 일정 : 11월 4일 (금) 부터 11월 13일 (일)까지
(5가와 웨스턴) 450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Kobe Pearl LAS VEGA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문의 전화 323.999.1558

*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8시까지 영업합니다.

가주마켓 California Market

ⓒ처치리더스닷컴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처치리더스닷컴, 예상되는 5가지 말씀 소개

최근에 처치리더스닷컴에는 '예수께서 동성애 공동체에 말씀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5가지'라는 제목의 글이 소개됐다.

처치리더스닷컴은 "오늘날 뉴스나 대중포럼에서 동성결혼과 전통적인 가치들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자.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다"면서 동성애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5가지를 소개했다.

1. 여러분을 위해 더욱 귀한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결혼과 성을 만드셨다.

성은 결혼이라는 언약 가운데 있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을 위해 창조되었다. 처음부터 그러했다.

죄는 즐거운 말이나 편안한 주제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우리의 관심 가운데로 계속 가져 오신다.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분과 함께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을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누리는 한 가지 즐거움을 가져가시거나 여러분의 즐거움을 망치려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결혼과 성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셨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으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원하심을 믿으라. 여러분이 옳다고 느끼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분을 신뢰하겠다고 결정하라(마 19:4~6, 엡3:17~21, 딤전2:4).

2. 여러분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과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실망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

여러분은 현재의 삶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즐길 수 있다. 예수님은 변화하기를 주저하는 여러분을 이해하신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께 소리지르고, 그분으로부터 도망쳤다.

그분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신을 알길 원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삶을 살길 원하신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다가 지쳤을 때, 그분은 여전히 이곳에 계실 것이다.

그분께 돌아켜서 도움을 요청하라. 눈깜짝할 사이에 그분은 이곳에 계실 것이다.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영원한 기쁨도 없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것을 원하신다. 그분은 여러분이 충만한 삶을 경험하길 원하신다.

예수님은 논쟁에서 이기길 원하시거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분과의 관계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이곳에서 인내심을 갖고 여러분을 당신께로 이끄실 것이다(롬2:4, 벧후 3:9, 벧전 5:7, 호세아14).

3.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시위대들, 소리지르는 군중들과 정치적 투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종종 떠내려갈 때가 있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은 전제조건이나 필요조건이 없다.

심지어 여러분이 그분을 미워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길 원하신다.

사랑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는 다름을 만들기보다 지적을 좋아하는 많은 이들에 의해 사라져버렸다(요 3:16, 요일 4:8~10, 로마서 5:8, 시편 86:15).

4. 거절에 대해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왕따가 된 느낌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큰 친구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기회가 되는대로 예수님께 모욕을 주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종교적 엘리트들은 정치인들과 결탁해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서 죽였다.

왕따는 상처를 준다. 예수님의 유일한 가족들은 그분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러분은 그러한 느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친구를 필요로 하실 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그를 버렸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당장, 사회나 교회에서 거절당했다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매일의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 예수님은 이를 이해하신다.

그분의 마음은 항상 거절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있으셨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팔에 안고 싶어하신다. 그리고 당신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했으며, 그분의 자녀이다.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사 53:3, 막3:20~21, 마26:55~56, 마27, 에스겔18:21~23).

5. 나 역시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과 같이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은 여러분이 유혹을 받거나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을 부끄러워하거나 거절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하고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처럼 살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완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직면하셨다.

그분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신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의 삶에 관해 읽게 된다면, 그분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사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히4:15~16, 히2:17~18,히 12:2~3,7~11).

장소피아 기자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30 (토)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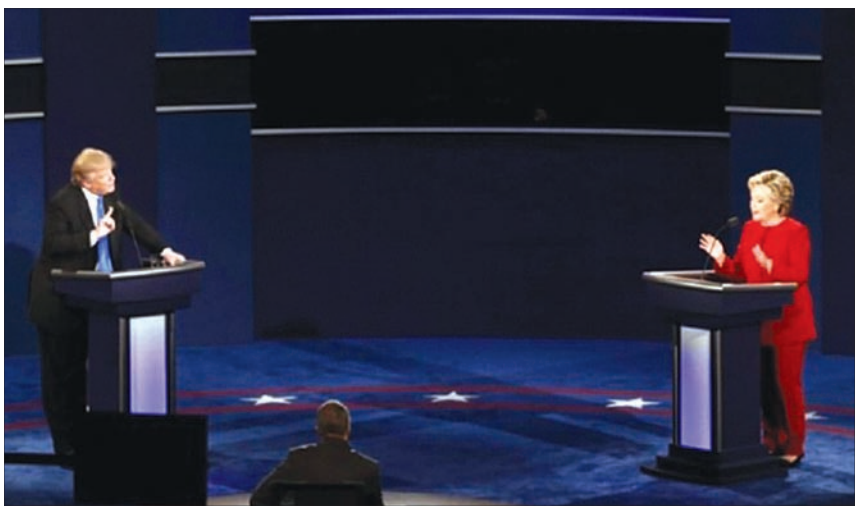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영상예배) 9:30am,11:30am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TV토론회에 출연 중인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왼쪽)와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보도화면 캡쳐

美 대선 승리자에 대한 예상

맥스 루케이도 목사…크리스천포스트에 관련 칼럼 게재

맥스 루케이도 목사.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맥스 루케이도(Max Lucado) 목사가 "지도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신뢰해야 한다"고 했다.

루케이도 목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에 "11월 8일 미국 대선,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예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이 칼럼에서 "우리는 이번 대선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증오와 경박함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 양측의 투표자들은 혼란을 느끼고, 심지어 당황하고 있다. 본능적인 두려움과 결과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그저 그런 승리는 어떠한가? 11월 9일 눈을 떴을 때, 싸움이 지나고 대선이 끝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라며 말문을 열었다.

루케이도 목사는 "나는 한 가지 예상을 한다. 11월 9일이 무엇을 가져다 줄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은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의 한 날이다. 그분은 여전히 책임자이시다. 그분은 여전히 보좌에 자리하고 계시다. 여전히 세상의 모든 일들을 치리하실 것이다. 그분의 섭리가 왕이나 대통령, 통치자에게 의존된 것이 없었다. 2016년 11월 9일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잠21:1)."

그는 "주님은 때로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성전을 파괴하도록 하셨다. 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7년 동안 옥에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셨다. 나라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 평화의 문이 열린다"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자들의 마음 속에 영향을 끼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초조해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한 느헤미야 선지자의 예를 들었다.

루케이도 목사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냈던 선지자라고 말하며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다. 자신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타락한 신앙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면서 "예레미야를 따라 눈을 들어보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담대히 믿으라"고 말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리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도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예레미야3:21~23)."

그는 "수 년 전에 나는 베테랑 조종사인 선교사와 함께 브라질 내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분과 나는 소형 비행기로 멀리 떨어진 마을로 날아갔다. 이 비행기는 약한 돌풍에도 흔들렸고 나는 안정을 취할 수가 없었다. 비행기가 마치 브라질 숲속 어딘가에 떨어져서 아나콘다나 피라냐에 잡아먹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계속 움직이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무엇보다도 의자를 꽉 붙잡고 있었다. 이런 나를 지켜보던 조종사가 마침내 큰 소리로 '내가 다루지 못할 문제를 만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나를 믿으라' 고 외쳤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루케이도 목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당신은 완벽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확하시고, 절대로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당신은 행복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왕이시고, 위대한 통치자 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왕이십니다.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피터 와그너 박사 소천

신사도운동으로 잘 알려진…교회성장 및 성령운동 이론가

故피터 와그너 박사.

교회성장 및 성령운동 이론가이자 국내에도 '신사도운동'으로 잘 알려진 피터 와그너(Peter Wagner) 박사가 10월 21일 소천했다.

와그너 박사는 미국 풀러신학교 세계선교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남침례대학교 빌리그래함 스쿨에서도 강의했다.

와그너 박사는 생전에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Leading Your Church to Growth), '제3의 물결'로도 불리는 〈새로운 운동〉(a new movement) 등을 저술한 저술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그가 주도한 이른바 '신사도운동'은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와, 한국의 보수·개혁 신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의 소천 소식이 전해진 후 남침례회 선교연구센터장인 에드 스테처 박사는 크리스채너티투데이에 기고한 글에서 "피터 와그너는 2개의 얼굴을 가졌다. 그의 관점을 매우 많이 바꾸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여러분이 80년대 사람이라면 교회성장운동을 이끌었던 매우 다른(예를 들어 은사주의가 아닌) 피터 와그너를 만났을 것이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그는 '신사도개혁'으로 불리는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사탄교회 상징인 바포멧. ⓒ사탄교회

사탄교회, 학교 방과 후 모임까지 시도

기독교 학부모들 심히 '우려'

타코마의 기독교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인근에서 '방과 후 사탄모임'(After School Satan Club, ASSC)이 열리는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LA 타임즈에 의하면, 시애틀 사탄교회를 설립한 릴리스 스타는 메사추세츠 살렘에 위치한 사탄교회 전국 본부로부터 시애틀 인근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사탄 모임을 가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동안 전국의 사탄교회 지부는 해당 학교 당국에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방과 후 모임을 대체하는 교육을 위한 장소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기독교 단체인 '굿뉴스클럽'에서는 복음주의 계통의 교계 인사가 학생들에게 성경과 신앙에 대해 가르친다. 그러나 방과 후 사탄 모임의 경우에는 과학적 합리주의가 자연세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뛰어난 모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시애틀 사탄교회의 스타는 LA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종교 모임들이 특히 5세부터 12세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탄 모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공식적인 교육과 방과 후 모임을 통한 세뇌 교육의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타는 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포스러운 전략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굿뉴스클럽을 고소했다.

그녀는 폭스뉴스의 지역방송국인 Q13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임에서는 아이들이 죄인이고 가치없는 존재이며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주장했다.

시애틀 북쪽에 위치한 마운트버논의 센테니얼 초등학교는 방과 후 사탄 모임을 열어도 된다고 승인했다.

그녀는 현재 타코마의 포인트 디파이언스 초등학교에서도 같은 목적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CBN 뉴스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스타가 포인트 디파이언스 초등학교의 굿뉴스클럽 학부모로부터 수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그녀는 "이 모임은 마귀를 숭배하거나 학생들을 사타니즘으로 개종시키려는 모임이 아니다. 다만 이 세계에 대하여 학생들이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크게 우려를 나타냈다.

기독교 학부모들을 비롯한 수십 명의 교계 지도자들은 타코마의 실로침례교회에 모여 방과 후 사탄모임의 정착 과정을 살피고, 이를 막기 위한 방편을 논의했다.

'딜리버런스 기도의 집'을 운영하고 잇는 마이클 도스 신부는 Q13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믿는 것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학교에 아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타코마 학교에 아이가 있다. 학교 당국이 이같은 일을 허락한다면, 공립학교에서 아들을 빼내서 홈스쿨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인 키아나 심슨도 이 모임을 추진하는 이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면서 "누가 이 모임을 이끌 것인지,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순진무구하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사탄교회는 오는 11월부터 포인트 디파이언스에서 방과 후 사탐모임을 여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들은 이 모임이 열리지 않도록 학교 당국을 계속 압박할 계획이다.

최근 LA 공립학교 당국은 사탄교회가 시내 초등학교에 방과 후 사탄모임을 열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를 기각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LA 통합교육구는 성명에서 "방과 후 사탄모임은 학교의 승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임을 열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족연구위원회 트레비스 웨버는 올해 초 작성한 기고문에서 "대법원은 학교 당국이 굿뉴스클럽과 같이 특정한 방과 후 모임에만 공개적인 포럼을 허락할 때, 그들이 표현의 관점에 기초해 다른 모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방과 후 사탄모임은 이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방과 후 사탄모임 단체는, 학교에서 자신들의 모임을 여는 것보다 학부모들의 항의를 이용해 현재 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포럼의 운영을 막는 것을 더 바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中, 7년 동안 투옥된 교회 목사 석방

지난 21일 중국 북부 산서(Shanxi) 지방의 대형교회 목사가 7년 수감 끝에 석방되었다. 이 교회 목사는 가정교회 철거에 항의하다 수감되었다고 크리스천포스트는 전했다.

중국의 기독교 박해 사례를 전하는 차이나 에이드(China Aid)에 따르면, 양 롱리(Yang Rongli) 목사와 그의 남편 왕 소광(Xiaoguang)는 2009년 공산주의 정권의 지하교회 탄압에 맞서다 투옥되었다.

이 부부는 그해 11월, 기도 집회를 가졌으며, 이에 중국 정부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폭도들을 모았다'는 죄목으로 양(Yang)목사에게는 7년을, 남편인 왕 씨에게는 3년 형을 선고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왓치독(watchdog)는 감금되어 있는 동안 그녀가 겪었을 참혹한 만행을 보여주는 물리적 징후들을 전했다.

보고서는 "양 목사의 머리카락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햇빛 부족으로 회색이 되었으며, 신장결석, 당뇨, 심장 질환으로 고통 받았다"고 말했다.

50대 나이의 왕 목사는 그녀가 체포될 당시 산서지방에서 5천 명의 가정교회들을 인도했다.

장소피아 기자

이라크 교회들, 모술 탈환 후 처음으로 종소리 울려

이라크 내 국제병력이 최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장악하고 있던 모술을 다시 탈환했다. 이들이 IS의 가장 강력한 근거지였던 모술 탈환을 위해 전진하면서, 이라크군을 비롯해 쿠르디스탄 병력과 미군 등 연합군은 모술 주변의 교회들을 다시 수복했다.

비록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전투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가 이들을 반기는 신호가 되고 있다.

군인들은 자유케 된 이들과 회복된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트위터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라크 군인들은 또한 군사 작전이 진행되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EM주일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교육부 오전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플러싱 지사	로스엔젤레스 지사	토론토 지사	서울 지사
(201)313-0899	(718)928-3333	(213)739-2222	(647)686-6000	(02)739-0890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HAPPY THANKS GIVING

추수감사절 최고의 가족여행을 떠나세요

추수감사절 특선 1
캐나다동부 4일
▶11/24 $1,399

- 11월24일 : LAX 출발(AM 07:50) – 몬트리올 도착(PM 4:04)
- 11월25일 : 몬트리올(성요셉성당) – 퀘벡(어퍼타운, 로워타운) – 몬트리올
- 11월26일 : 몬트리올 – 오타와 – 토론토 – 나이아가라
- 11월27일 : 나이아가라 – 토론토 출발(PM 6:00) – LAX(PM 8:45)

❶ 올해 나이아가라를 관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❷ 연휴 3박4일을 꽉차게 보낸다는 점 (별도로 휴가를 내지 않고 연휴를 알차게 보낸다는점)
❸ 퀘벡과 몬트리올, 오타와, 토론토까지 제대로 즐기는 캐나다 동부

추수감사절 특선 2
캔쿤 4일 $1,399
▶11/24

❶ 추수감사절 추천 최고의 가족 여행지
❷ 최고급 리조트인 문팔레스 리조트에서 ALL-INCLUSIVE 서비스를 즐기세요
❸ 추수감사절 '골프 무제한'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Special 1 Peru
안데스 문명의 중심 페루
5박6일 ▶10/30 $2,799
리마-쿠스코-마추피추-우르밤바-리마-이까-나스카
❶ 트립어드바이저 선정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 1위 '마추픽추'
❷ 작은 갈라파고스로 불리는 물개섬
❸ 경 비행기로 즐기는 신비의 나스카 지상 그림
❹ 꽃보다 청춘 3인방을 홀린 '와카치나 사막'
❺ 황금의 신전 꼬리깐차

Special 2 las vegas Bellagio
한인 여행사 최초 / 추가요금 없습니다
벨라지오 호텔숙박
3일	그랜드캐년 / 라스베가스	▶매주 화 출발	$299
4일	실속 4대 캐년	▶매주 화 출발	$389
6일	실속 미서부 일주	▶매주 화/토 출발	$599
7일	4대 캐년 + 요세미티 / 샌프시스코	▶매주 화/토 출발	$689

Special 3 Grand Circle
그랜드서클 9대 캐년/세도나 6박7일
[특별출발] ▶11/24 $849
▶로스앤젤레스-라스베가스-윌리엄스-세도나-그랜드 캐년-페이지-파웰 호수-글랜 캐년댐-페이지-앤텔로프 캐년-모뉴멘트 밸리-모압-아치스 캐년-캐년랜즈-캐피탈리프-브라이스 캐년-라스베가스-캘리코-로스앤젤레스

미서부
세도나 투어, 알렉스 강 고문 동행
라스베가스/세도나 2박3일
▶월요일 출발 $249
▶바스토우, 라스베가스, 킹맨/셀리그만 윌리엄스, 플래그스태프, 세도나, 몬테주마 웰 피닉스, 팜스프링스, 로스앤젤레스

서부 여행의 새로운 표준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월 그랜드 캐년/브라이스 캐년/자이언 캐년		
4대 캐년 (벨라지오 숙박)	4일	$389
4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 4일 – 매주 화 / 7일 매주, 화 토 3대 캐년 + 앤텔롭 캐년		
그랜드 캐년/라스 베가스 (벨라지오 숙박) ▶ 매주 화, 토	3일	$299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 매주 월, 목, 금, 토	4일	$389
미서부 실속 여행 (벨라지오 숙박) ▶ 매주 화 토	6일	$599

LA 일일투어
▶매일 출발 $59
(50인승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중식불포함)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 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캐나다
Wow~ 천섬크루즈 포함
리얼 캐나다를 보다!
실속 캐나다 동부 5일 ▶매주 목 ~~$1,399~~ $1,099
신상품 런칭기념
토론토, 천섬, 몬트리올, 오타와, 나이아가라, 올드퀘벡(어퍼/로워타운), 총독관저, 캐나다 연방 의사당, 와이너리 (캐나다 아이스와인 시음까지) 방문

한국
No팁! No옵션! No쇼핑!
- 항공포함 / 전주, 해남, 외도, 경주, 영덕, 설악 등

전국일주 7일	▶토	$2,199
서남부권 4일	▶토	$1,699
한려수도일주 3일	▶월/금	$1,699
남해안 일주	▶월/금	$1,499
평창 올림픽/강원 3일	▶수	$1,549

녹십자 퍼펙트 건강검진
건강검진+리무진+강남소재 호텔숙박
녹십자HS 멀티비타민 무.료.증.정
퍼펙트 플러스 검진 $530 건강검진만 $370
신체측정, 안구, 구강, 심전도, B형간염, 흉부X-ray, 소변검사, 혈액정밀검사, 갑상선기능, 상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퍼펙트 골드 검진 $600 건강검진만 $440
플러스 퍼펙트 건강검진+수면대장내시경

미동부
$100 상당의 3대 옵션 포함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안개속의 숙녀호 탑승

명문대 탐방 5박 6일 (브라운 / 예일 / 하바드 / MIT / 프린스턴 / 유펜 / 존스홉킨스 / 콜롬비아)	▶화,토	$1,090
명문대 탐방 7박 8일 (브라운 / 예일 / 하바드 / MIT / 프린스턴 / 유펜 / 콜롬비아 (나이아가라)	▶수	$1,160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4명 이상 출발

"푸른투어는 동부여행도 직접 운영합니다"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 6일 (미동부 5일+토론토/천섬)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 8일 (미동부/천섬 6일+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천섬 6일+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올랜도 특별상품
디즈니, 유니버셜 등 에버글레이드 에어보트 ▶매주 화
올랜도 3일 $799 4일 $899 5일 $1,399
마이애미 3일 $849 4일 $949
올랜도/마이애미 4일 $1,399 5일 $1,499

쿠바
카피톨리오 / 산 프란시스코 광장
존엄광장 / 반얀 트리 공원헤밍웨이 박물관
프라도 거리 / 바예 궁 / 비날레스 계곡
▶4명 이상 수시출발 : 팁포함 / 항공불포함

4박 5일	5박 6일	6박 7일
$1,335	$1,820	$2,155

멕시코
하얏트지바 로스카보스 숙박 신혼여행 / 골프패키지 All Inclusive 서비스

로스카보스	4일 $659 +항공	5일 $800 +항공	6일 $1000 +항공
칸쿤	4일 $800 +항공	5일 $950 +항공	

뿌라비다 코스타리카
활화산 용암 온천물로 즐기는 알칼리 온천욕 뽀아스화산/라빠스나비/폭포공원 관광 포함

3박 4일	▶11/24, 12/20	$910 +항공
4박 5일	▶11/23, 11/24, 12/3 12/21, 12/22, 12/23	$1,020 +항공
5박 6일	▶11/29	$1,140 +항공

남미

바다위의 리조트, 크루즈
특급 프린세스
미주 최대의 직영점을보유한 푸른투어만의 남미완전일주
페루/이과수/리오와 남미완전일주크루즈 23일 $4,999 ▶2017년 1월 14일
[남미 〈아말리아빙하〉크루즈와 이과수/리오데자네이로 20일 $4,299 ▶2017년 1월 17일
특급 프린세스와 함께하는 남미일주 크루즈 17일 $2,999 ▶2017년 1월 17일

피지/호주/뉴질랜드 18일 $4,599
남태평양 최고의 자연경관 피요르드 랜드 내셔널 팍 ▶2/19
천혜의 유양지 남태평양 파라다이스 피지와 뉴질랜드 남북섬, 호주로 이어지는 환상의 크루즈 여행

크루즈 런칭 기념 PRINCESS CRUISE 특선
* BAJA MEXICO 5일 ▶11/27 $345
▶ 11/27 LOS ANGELES / SANTA BABARA / ENSENADA (CROWN PRINCESS)
* MEXICO RIVIERA CRUISE 8일 ▶11/12, 12/10 $699
▶ LOS ANGELES / PUERTO VALLARTA / MAZATLAN / CABO SAN LUCAS (RUBY PRINCESS)

멕시코 / 캐러비안 크루즈
바하멕시코	4일 ▶매주 목, 금	$299 부터
바하멕시코	5일 ▶매주 일, 월	$299 부터
바하마 캐러비안 크루즈	5일/8일 ▶수시출발	$799
전세계 크루즈	▶수시출발	

▶ 파나마운하 / 남미(남극)크루즈 / 쿠바크루즈 / 하와이 남태평양 / 갈라파고스 / 알래스카 / 지중해 /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피요르드 / 그리스. 흑해

*크루즈 상품은 출발일마다 계약시점에 따라 요금 변동 있습니다.

유럽
감성과 낭만의 중세 유럽으로의 시간여행
스페인 완전 일주 8일
▶11/20출발 $2,399
▶ LA – 뉴욕 – 마드리드 – 톨레도 – 세비야 – 론다 – 그라나다 – 발렌시아 – 바르셀로나 – 뉴욕 – LA
프라도 미술관 / 똘레도 대성당 / 뿌엔떼 누에보 / 알함브라 궁전

이태리 일주 8일
지중해의 열정이 가득한
▶12/13출발 $2,399
▶ LA – 뉴욕 – 밀라노 – 베로나 – 베니스 몬테카티니 – 피렌체 – 타볼리 – 폼페이 쏘렌토 – 나폴리 – 로마 – 뉴욕 – LA
베니스 곤돌라 체험 / 산마르코 성당 / 아씨시 관광

크로아티아 완전일주 + 슬로베니아 / 보스니아 10일
특별출발 ▶11/5, 11/25
▶ LA – 뉴욕 – 플리트비체 – 두브로부니크 – 스플릿 – 라스토케 – 블레드호수 포스토니아 동굴 – 파란, 모스타르 – 메주고리예 $2,999
크로아티아 / 보스니아 / 플리트 비체호수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1,749 +항공
▶출발 : 11/16, 11/23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 마오리 민속마을 / 아그로돔 농장
스카이 라인 골돌라 탑승 / 장미공원 / 거울 호수 관광
밀포드 사운드 / 본다이 비치 / 하버 브릿지 / 오페라 하우스

정통 서유럽 12일
▶수시출발 $3,399
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이태리

정통 동유럽 10일
▶수시출발 $2,999
뮌헨/프라하/크라카우/바르샤/부다페스트/비엔나

동서유럽 20일
▶수시출발 $5,199
런던/파리/인터라켄/밀라노/베니스/로마/프라하/비엔나 등

미니 서유럽 8일
▶수시출발 $2,899
런던/파리/인터라켄/밀라노/베니스/로마/프라하/비엔나 등

꽃보다 발칸 5개국 8일
▶수시출발 $3,099
4성급 호텔이상, 전용버스, 입장료포함 전 일정 특식제공
– 해물파스타/송이구이/호이리게

스페인/포르투갈 11일
▶수시출발 $3,199
리스본/세비야/코르도바/똘레도/바르셀로나

그리스/터키 11일
▶수시출발 $3,099
이스탄불/카피도키아/콘야/안틸야/파묵칼레/에페소/데살로니가/고린도/아테네

이태리 일주 7일
▶수시출발 $2,799
밀라노/베니스/피사/피렌체/로마/폼페이

하와이
호텔 인&아웃 픽업 서비스 포함 홀로홀로 시내관광, 오아후 섬 일주관광

퀸카피올라 호텔 4일	$799
애쉬톤 와이키키 4일	$929
하와이 허니문 3일	$1,349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11)

엔게디…기다림의 축복

◈엔 게디로 가는 길(Ein Gadi)

마사다와 사해를 구경하고 사해 서쪽 해안을 타고 90번 도로를 타고 북상하다 보면 광야의 오아시스를 만난다. 마사다에서 북쪽으로 약 9.94마일(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엔게디에서 북쪽으로 23.8마일(38.4km) 계속 올라가면 사해 사본이 발견된 쿰란 지역이 나온다. 예루살렘은 이곳에서 북서쪽 광야로 올라가 드고아를 거치면 31마일(50km)이 되지만 광야로 옛날처럼 갈 수 없어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한다. 90번 도로와 1번 도로를 이용하면 사해와 유대광야를 통과하여 예루살렘까지 54.4마일(87.6km)이 된다. 차로는 1시간 25분쯤 걸린다.

대부분의 순례객들은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므로 마사다와 사해를 거쳐 이곳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였다. 서쪽으로 드고아-베들레헴-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길목이며 남북으로 아라바 광야를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이었고. 사해 동편 모암지역에서도 이곳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중요한 통과로였다.

구약 창세기 14:7에 '하사손 다말'이라고 묘사된 지역이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사해 연변의 중요한 도시였다. 아브람이 롯을 구출할 때와 관련된 곳이기도 하다.

여호수아 정복전쟁 후에는 유다족속의 기업이었다.(수15:52)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암과 암몬의 침략 거점이기도 하였다.(대하 0:1~6) 페르시아 시대에 큰 마을을 이루기도 하였고, 로마시대에는 왕실의 소유로 중요한 향료를 재배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성벽을 갖춘 도시의 면모도 있고, 주후 1~2세기 엣세네 파의 또 다른 거주지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오아시스는 유대전쟁시 파괴되어 버려졌고, 1848년 최초 발굴과 더불어 1960년에 히브리대학의 마잘교수에 의하여 발굴이 완료되었다. 이스라엘 왕실의 이름이 적힌 항아리, 제단, 제의용구들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시가서에서 말하는 엔게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아가 1:14)

아름다운 사랑의 서사시 무대였던 엔게디는 사해 서쪽 중간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사해의 푸른 물이 동편으로 펼쳐지고, 마온 황무지, 십 광야, 유대광야가 서편으로 둘러싸고 있는 메마른 곳이다.

하사손 다말이라는 고대 이름을 보건대 '하사손'-자르다, '다말'-종려나무 이곳은 4개의 샘이 모여져 만들어진 오아시스로 1년 300만 리터에 달하는 풍부한 수량으로 식물 900종 새 200종이 모여 살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깊고 깊은 골짜기가 10군데에 이르고 광야에 발을 잘못 들여 놓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실제로 엔게디 뒤편 계곡에서 광야 투어 중이던 미국여학생들이 조난당하여 6명이 사망하기도 하였고, 필자도 2002년경에 한국인 5명과 함께 광야탐사에 나섰다가 조난당하여 거의 아사직전까지 간 경험이 있다. 길을 잃고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러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엔게디에서 고난을 받다

얼마나 계곡이 깊고 험한지 아침 10시에 들어가서 새벽 1시에 엔게디 키브츠 쪽으로 간신히 내려왔다. 그때 필자는 무릎이 아파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었으며, 가지고 간 물과 음식물이 다 떨어져서 갈증 속에서 입이 불에 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 한번만 살려달라고. 생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간절하고 가장 긴 기도를 드렸던 순간순간이었다.

필자는 엔게디에 올 때마다 그때 일이 떠오르면서 다윗이 생각났다.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사위가 되면서 승승장구 백성들의 환영 속에 혜성같이 떠올랐던 다윗,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장래의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는 사울의 미움을 받아 광야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다.

◈다윗과 엔게디

만만의 사나이가 절망의 사나이가 되어 광야로 쫓겨 다니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이다. 엔게디 폭포가 보이는 광야학교 잔디밭에서 광야를 바라보면 다윗의 인내가 생각난다. 얼마나 외롭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까!

이 상황을 끝낼 기회가 바로 엔게디 동굴에서 일어났다. 사울이 다윗이 숨은 굴로 들어왔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광야의 목마름을 끝낼 기회를 잡은 것이다. 참 이상도 하지 왜 그날 사울은 3천 군사나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숨은 굴을 먼저 군사들이 수색하지 않고 사울 혼자 했는가 말이다? 물론 급한 일처리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일국의 왕이고 또 원수를 찾아 나선 길인데 음침한 동굴로 들어가면서 먼저 휘하 장수들이 수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곳에서 다윗은 결국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증한다. 왕도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님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울이 다윗의 숨은 굴로 들어왔을 때 뛸듯이 기뻐한 것은 다윗의 추종자들이다. 이들 눈에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것이다. 3천 군사는 밖에 있고 사울 혼자인데 그의 목을 치면, 이제 광야를 떠도는 비참한 인생이 끝장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뜻임을 주장 하였다. 눈에 보이는 기회에 철저히 영의 눈이 가려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다. 진정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바라면서(삼상23장) 평범한 사람은 한치 앞밖에 못 본다. 그러나 신앙으로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높이, 깊게 본다.

다윗은 기다림을 통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다윗도 인간인데 어찌 광야의 도주가 힘들지 않겠는가, 또 도와주고 믿어준 추종자들의 권고도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것이며, 누가 보더라도 이 같은 황금의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인 것이다.

◈절호의 기회

한번만 마음 모질게 먹으면 광야의 굶주림과 멸시도 도망다님도 끝나고 사울을 죽인 후 기브아 왕궁으로 가서 왕 노릇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역시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

과연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또다른 시험인가? 순간 수많은 갈등과 망설임이 있었겠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고 너그럽게 사울을 보내준다.

주께서는 이 행위를 기쁘게 받으신 것 같다. 그렇다. 지금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아보자. 서두르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완벽한 기회를 기대해보자. 다윗이 처한 형편이 우리보다는 더 어려웠음을 기억하자.

결국 사울은 요나단과 더불어 불레셋과의 전투현장인 길보아산에서 죽게된다.(삼상31:4)

엔게디에서 북쪽으로 100km이상 올라가야 길보아산이 나온다. 사울의 사후 다윗의 부하들과 사울의 부하들 사이에 싸움이 지속되었지만 결국 다윗에게로 전세가 기운 것은 다윗의 기다림의 축복이었다.

◈엔게디와 시편23편

광야의 오아시스(수15:26) 답게, 지금도 엔게디 폭포에서는 신기한 물줄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물이 떨어지는 언덕 너머에는 물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전형적인 광야인데 말이다.

그리고 대추야자 열매가 자라고, 엔게디라는 상표를 가진 생수공장이 있어 생수를 생산하기도 한다. 공원입구에서 40분정도 걸어가면 폭포를 만난다. 시간이 허락하면 폭포수에 물을 담그고 시편23편을 외워봄도 좋다.

다윗이 걸어가던 길 어디에 푸른 초장이, 쉴만한 물가가 있었던가? 광야는 괴롭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그 장소를 발견하였다. 바로 이곳 엔게디에 와서야 그는 비로소 시편 23편을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시편23편이 이곳에서의 체험을 통해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결국 시편23편은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고통과 목마름의 현장인 광야에서 기록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시편23편은 더욱 빛을 발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주어진 환경이 비록 열악해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될 것이다. 광야의 꿈은 푸른 초장이다. 그것은 주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오늘도 엔게디 "산양의 샘"에서 나는 느낀다.

◈에스겔의 환상과 엔게디

유다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 2차로 나이 25세에 그발 강가 텔아빕으로 끌려갔던 에스겔은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된다.

에스겔은 망해가는 조국의 모습을 포로지에서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 모른다. 에스겔은 유대 포로민들에게 예루살렘의 최후를 선포하면서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일어나는 환상을 선포하였다.(겔37:1~10)

에스겔은 37장25절에서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고 선포하며 우상과 가증한 것을 버리면 그들은 내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하였다.

에스겔의 생기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미래성전 곧 교회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그 중심 무대는 성전이지만 그 무대의 주인공은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간다고 하였다.(47:8) 내려간 물은 사해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사해가 되살아나리라고 한다. 고기가 없는 사해에 물고기가 생기고 어부가 설 것이라고 한다.(47:10)

진펄과 개펄은 소금땅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엔게디 샘가에는 열매가 끊이지 않겠다 하였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엔게디를 통과한 후 사해에 들어가서 생해로 만들겠다는 놀라운 환상이다. 바로 엔게디는 환상이 실현되는 복된 곳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정통유대인 청년들에게 예수의 꿈을 노래로 전하였다.

엔게디는 에스겔 47:9~10절의 꿈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될 것임을 또한 믿는다.

〈계속〉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엔게디는 에스겔 47:9~10절 꿈이 이뤄지는 무대

믿음과 인내를 통해 기다림의 축복을 가져다준 엔게디 동굴

지금도 엔게디 폭포에서는 신기한 물줄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나들이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2월 14일~25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텐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개척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할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전도용품 세일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 전도물티슈 ✦ ✦ 볼펜 ✦
전도용물티슈 1,000set($380) 고급향균 물티슈!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샘플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환영배너 (스텐드 포함 $65) Free Shipping!!!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 보험 가입 &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수소수의 활성 산소 제거 과정
수소 활성산소 ▶ 수소 활성산소 ▶ H2O
체내에 물과 함께 흡수된 수소가 분리되어
몸에 나쁜 활성산소와 결합이 되고
무해한 물로 바뀌어 소변이나 땀등으로 배출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높은 용존 수소량 · 가정용 수소수기 · 강력한 환원능력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시금치 90다발 바나나 1512개 사과 1032개 당근 76개 큰호박 7개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한국의 키친아트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GSPH 100 $2,9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Pure & Good Hydrogen Generator with Water Purifier
구입 문의 Tel. 213)434-1170 PRO-Z USA, Inc. 621 S.Virgil Ave.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5

예수는 신화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제5회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예수, 신화인가? 하나님 아들인가?'라는 주제로 10월 22일 서울 방화동 큰나무교회(담임 박명룡 목사)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박명룡 목사는 '예수는 신화인가? 역사인가?', '신약성경은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를 주제로 오전 시간에 잇따라 강연했다.

박 목사는 서울신대(M.Div.)와 탈봇신학대학원(Th.M.)을 졸업하고 바이올라대 전문대학원 기독교 변증학 석사(M.A.), 탈봇신학대학원 '지성적 영성 개발' 목회학 박사(D.Min.)를 이수한 기독교변증 전문가다.

박명룡 목사는 첫 강연에서 티모시 프리크(Timothy Freke)와 피터 갠디(Peter Gandy)가 쓴 〈예수는 신화다〉와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SBS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을 반박했다.

〈예수는 신화다〉는 예수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메시아의 전기가 아니라 이교도의 유서 깊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한 하나의 '신화'이고, 그리스도교는 새롭고 유일무이한 계시 종교였던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각색된 고대 이교도의 미스테리아 신앙이었을 뿐인 '허구적 신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스테리아'의 핵심에는 죽어서 부활한 신인(神人)과 관련된 신화가 놓여 있는데, 이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 소아시아에서는 아티스, 시리아에서는 아도니스, 이탈리아에서는 바쿠스,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스 등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본적으로 모두 동일한 신화적 존재이다.

저자들은 오시리스-디오니소스 신화와 예수의 전기 사이의 유사점으로 △오시리스-디오니소스는 육체를 가진 신이며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며 어머니는 인간 처녀(동정녀)이다 △3명의 양치기가 찾아오기 전인 12월 25일에 동굴이나 누추한 외양간에서 태어난다 △신도들에게 세례 의식을 통해 다시 태어날 기회를 준다 △결혼식장에서 물을 술로 바꾸는 기적을 행한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송하며 그를 맞이한다 △죽은 지 사흘만에 부활해서 영광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신도들은 최후의 날 심판자로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그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 의식으로 기념된다 등을 말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박 목사는 이에 대해 "신화는 역사적 정황 속에서 발생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기독교는 이와 달리 처음부터 예수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죽고 부활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증언과 설명을 제시한다"면서 그들의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예수는 신화다〉, 새로운 주장 아냐

먼저 〈예수는 신화다〉가 기독교에 대해 '고대 신비종교를 모두 혼합하여 상상력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낸 가상의 종교적 신화'라고 한 것에 대해 "기독교가 발생하기 전에 기독교와 유사한 특성들을 모두 갖춘 신비 종교들은 하나도 없었고, 이는 저자들도 인정한다"며 "저자들은 고대 신비 종교들 중 각기 다른 특성을 떼내어 한 곳에 갖다 붙여 인위적인 오시리스-디오니소스 신화를 새롭게 창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수는 신화다〉 저자들은 이를 마치 새로운 학설인 것처럼 과장하지만, 사실 20세기 초 알버트 슈바이처 시대부터 유행했다"며 "역사적 예수 연구에 몰두했던 슈바이처는 '그런 근거 없는 고대 신화는 바울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했다.

또 기독교와 다른 신비 종교들의 세례를 비교 연구한 군터 와그너는 "기독교가 모든 핵심 교리를 베껴 올 만큼 완성된 신비 종교는 예수 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고대 신비 종교들과 기독교의 관계를 깊이 있게 연구한 로널드 내시(Ronald Nash)는 "기독교 이전 신비 의식들이 실제 용어로서 '거듭남'을 사용했다는 믿음은 심지어 단 하나의 자료에서도 뒷받침될 수 없다"고 하는 등, 학자들은 〈예수는 신화다〉 저자들의 주장에 학문적 근거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

박명룡 목사는 "어느 두 종교 사이에 유사점들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한 종교가 다른 종교에서 빌려온 내용이라는 점을 필연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며 "인간은 '종교성'이라는 보편적 공통 요소들을 갖고 있기에, 보편적 종교성을 토대로 생겨난 종교들은 때로는 서로 비슷한 개념들을 공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독교가 신비 종교들의 신화를 베꼈다는 주장은 연대기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박 목사는 "실제 고대 역사를 살펴볼 때, 기독교 발생 전에 기독교가 그 내용을 빌려올 수 있을 만큼 성숙된 신비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기독교 발생 이전에 죽었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난 신은 없었다'는 점은 고대 신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권위 있는 학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당시 신비 종교들이 기독교의 영향 받아

기독교와 신비 종교들 사이의 유사점은, 오히려 '신비 종교들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고도 했다. 그 근거로는 △고대 신비 종교들은 처음부터 혼합주의였지만, 초기 기독교는 처음부터 배타적이었다 △2~3세기 신비 종교들은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적극 모방을 시도했다 등을 들었다.

박 목사는 "기독교가 발생하기 전 고대 신비 종교들은 기독교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숙하지 못했고, 유대 지역에서 그 신비 종교들의 실질적 영향력은 별로 감지되지 않다가 3세기 들면서 신비 종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한다"며 "일례로 기독교와 매우 놀랄만한 유사점을 가진 미트라스교(Mithraism)는 A.D. 90년까지 존재조차 입증되지 않았고 2세기가 넘어서야 서서히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미트라스가 기독교 발생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큰나무교회, 제5회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에서 강연하고 있는 박명룡 목사.

단, 기독교가 신비 종교들을 모방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미트라스 탄생 축제일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진 성탄절 날짜(12월 25일)이다.

그는 "그러나 기독교는 시작할 때 모방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성숙된 후인 4세기 이후, 핵심 교리가 아니라 여러 의식들을 차용했을 뿐"이라며 "이러한 차용들은 초기 그리스도인의 복음 선포와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차적인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기독교가 발생할 당시 여러 신비 종교들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퍼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신비 종교들은 모호하고 비밀스러웠으며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처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실제로 죽고 다시 부활하는 신인의 신화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기독교가 급성장하여 세상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혼합적 성향이 강한 많은 신비 종교들이 기독교 신앙을 모방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그는 "사실 〈예수는 신화다〉 저자들의 기독교 관련 주요 주장들 중 대부분이 '조작된 허위'라며 "고대 신화를 제대로 연구한 학자들은, 예수의 역사적 행적들이 오시리스-디오니소스 신화의 영향 때문에 신화회됐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약성경,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 한가?

박명룡 목사는 이어진 강의에서 '신약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서도 여타 고대 경전들이나 동·서양 고대 문헌들과 비교해 논증했다.

그는 "신약성경뿐 아니라 고대의 종교 경전들은 모두 다 구전 전승기간을 갖고 있어, 각 종교 지도자의 생애와 가르침이 구전으로 전달돼 후대에 문자로 기록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고, 그 구전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가르침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며 "그 기간이 조로아스터교 1천여 년, 불교 500여 년, 이슬람교 20~200년 등인 데 비해,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후 18-60년 사이 모두 문서로 기록됐다"고 했다.

종교 경전뿐 아니라 동·서양 고대 문헌들과 비교해도 이는 충분히 짧은 수치이다.

공자의 〈논어〉는 150~300년 후, 노자의 〈도덕경〉은 200~300년간 계속 첨가·삭제됐고, 알렉산더 대왕 전기는 사후 400년, 로마 황제의 기록조차 황제 사망 후 80~250년 후에 각각 기록됐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신약성경의 역사성은 고대 동·서양 문헌들 중 가장 탁월한 역사적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목사는 "좋은 지적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일반 고대 문서들은 거의 모두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 필사본에 의존하고 있다"며 "문제는 신약성경 기록이 다른 고대 문서들의 기록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더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지, 필사본끼리 상호 일치율이 높은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일반 역사 저작물들은 몇백 년에서 1천 년 이상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있지만, 신약성경은 몇십 년 이내에 쓰여진 필사본이 보존돼 있고 최대 간격도 300년 이내이다. 필사본도 희랍어 5,664권, 라틴어 약 1만 권, 그 외 언어 8천 권 등 총 2만 4천여 권이 존재한다. 사본 일치율도 99.5%에 달한다고 한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일반 역사서에서도 다수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박명룡 목사는 "고대 종교와 문서들 중 신약성경 기록만큼 정확한 문서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고대 문서들 중 일반 역사를 가름하는 잣대를 적용할 때, 신약성경은 가장 신뢰할 만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만일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고대 동·서양 주요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신뢰성도 모두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공 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2016년 10월 13일
제6차 임원회를 통하여 정종윤 목사, 조병국 목사를
부회장에서 제명, 사무총장 안기정 목사 (2016년 10월 5일
~2016년 10월 13일)를 직위해제 하기로 결의하였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46대 회장 강신권 목사
총무 김영구 목사, 서기 한대명 목사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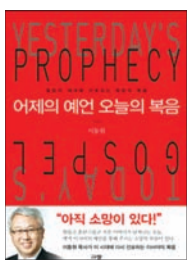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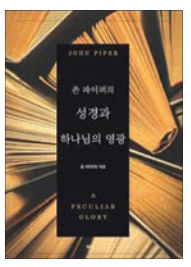
신간 추천

어제의 예언 오늘의 복음
이동원 | 규장 | 304쪽



이 책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성경과 하나님의 영광
존 파이퍼 | 두란노 | 쪽



이 책은 성경의 진리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대한 깊은 묵상들로 가득 차 있다. 변증학과 교회사에서부터 서정시까지 곁들여진 이 책은 모든 독자들에게 감화를 끼쳐 성경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존 파이퍼는 이 책 속에서 성경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교회 비전 바로 세우기
마이클 밀톤 | P&R | 320쪽

마이클 A. 밀톤 박사는 이 책을 통해 교회의 사역은 철저히 성경에 입각한 사역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의 다양한 사역들을 제시하면서 이 사역들이 하나의 온전한 조합을 이루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곧 교회의 비전임을 말한다. 이 책은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인도 선교의 이해2
진기영 | CLC | 360쪽

1권이 인도 선교 전반을 두루 다루었다면, 2권에서는 실제적인 선교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하고 있다. 그동안 인도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왜 인도 사회가 기독교에 대하여 비호감을 갖게 되었는지 전통적 선교 방법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서 분석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인도 문화에 적합한 성육신적 선교 모델들을 제시한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새가족 신앙 성장을 위한 '행동 매뉴얼'

은혜가 충만한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은혜=성령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엄마를 사모한다 함은 엄마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책의 서론은 꽤 길다. 긴 서론을 읽으면서, 저자는 성령의 역사를 은혜로 표현하는 듯했다. 탁월한 선택이다.

만약 성령으로 표현하였다면 분명 신학적 논쟁을 야기시켰을지 모른다. 하지만 저자는 은혜로 표현함으로써 정말 은혜롭게 받아들이게 된다.

성령의 역사는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한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존 파이퍼

이 책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다.

'기쁨의 신학'은 존 파이퍼의 닉네임이기도 하다. 책에서 저자 자신은 존 파이퍼의 영향 아래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으며, 그 영향에서 벗어날 생각도 없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삶으로 설득된다.

정말 온 마음과 온 감각과 온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을 느끼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 중 하나여야 한다.

은혜받는 습관
데이비드 마티스
생명의말씀사 | 288쪽

◈3가지 습관

이 책의 저자는 존 파이퍼와 도날드 휘트니를 자주 언급하고 몇몇 다른 저자들도 언급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본서에서 언급되지 않는 리차드 포스터의 '영성훈련' 내용과 상당히 중복된다.

그럼에도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24가지의 복잡함에 비해, 3가지로 단순화시키고 있는 것이 본서가 가진 차별성이다.

저자는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교제의 습관으로 압축하고, 그 안에 다양한 행위들을 각각의 핵심 습관으로 묶어서 잘 정리하고 있다. 본서는 교회 새가족부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을 만큼 실제적이다. 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개교회의 역량에 달려 있을 것이다.

◈새가족이나 초신자 매뉴얼

지금까지 한국에 소개되어 있는 새가족 공부나 새가족 지침서들은 거의 대부분 '조직신학적 접근'으로 일관돼 있다.

성경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내세론(종말론), 교회론의 패턴으로, 인지적이고 개념적 교육으로 정형화 되어 있다.

여기에 이 책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과 행위들을 소개하고, 그 이유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충하여 사용한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북스리뷰]

한 심리학자가 현대인에게 보내는 '영혼에 관한 편지'

인간의 특별함은 신경생물학적 관찰이 아니라, 신학에서 나온다

신경과학과 진화학의 발전, 특별히 뇌 연구와 진화심리학은 영혼과 종교의 실체를 물리적으로 파악하게 만든다. 더욱이 동물과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인간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로 여기게 하는 경향이 있다.

말콤 지브스는 심리학자의 입장에 서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답하기 위해 본서 〈마음, 뇌, 영혼, 신〉을 썼다.

저자는 가상의 심리학과 신입생인 '벤'을 내세워 대화체로 진행하는데, 그가 던지는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연구 속도가 가속화되면 정신 작용이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로 모두 환원되어 버릴까요(38쪽)?"

"유전적 구성 때문에 종교를 갖는 일이 더 쉬운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일까요(65~66쪽)?"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다는 생각은 모두 착각 아닌가요? 나는 나의 뇌가 하고 있는 일, 또는 이미 해버린 일을 보고할 뿐인 건가요(7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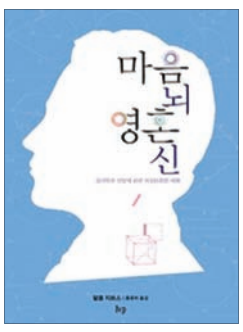
"신약 성경은 영혼을 어떤 의미로 쓴다고 생각하세요(112쪽)?"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영혼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임사체험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 너머에 별도의 존재 영역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해요.... 임사체험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124쪽)?"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동물에게도 도덕률이 있느냐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하나가 또 사라졌다는 뜻인가요(150쪽)?"

"그리스도인들이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227쪽)?"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입장은 '이중양상 일원론자(dual-aspect monist)'라는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다. 비록 표현은 다르지만, 낸시 머피의 그 유명한 '비환원적 물리주의(non-reductive physicalism)'와 유사하다. 그는 스스로



마음, 뇌, 영혼, 신
말콤 지브스
IVP | 312쪽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마음과 뇌가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의 두 측면이라고 본다."

이것은 소위 '창발'(emergence)이라 불리는 현상과 연관된다. 인간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 각 세포는 자의식이나 인지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포가 특정 질서에 맞게 구성될 때, 마음 혹은 의식이 생겨난다.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크지 않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총합으로 인해 새로운 능력(capacity)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창발이다.

이러한 인간만의 능력을 강조하는 사고는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전통적인 기독교 인간관을 지지하기도 한다. 실제로 말콤 지브스는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보수적 성경관 및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말콤 지브스는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라는 개념을 버리면서도, 동시에 동물이나 (비록 언급되진 않지만) 인공지능과는 다른 존재로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그려내려 노력한다.

그렇다면 이제 위의 질문에 맞추어 말콤 지브스의 입장을 들어보자. 우선 그는 모든 것이 환원된다고 주장하는 (심리학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맞다면,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무의미한 수다에 불과하게 될 뿐이라고 논한다. 물론 이것은 수사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주장이지, 과학적인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두 질문은 유전자와 자유의지에 관한 것이다('자유의지(free will)'라는 표현은 신학적인 것으로, 근대 들어서는 대안적 용어로 선택(choice)이나 의사 결정(decision-making)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 중간 매개 없이 여러 요소(전기자극 등)가 어떤 선택과 의사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물리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창발의 개념과 톱 다운 시스템(상의하달 시스템-생각이 뇌를 통제한다는 주장)을 도입한다. 그리고 그러한 '신 유전자'는 없다고 못박는다.

그럼에도 최근 옥시토신 분비가 CD38 유전자를 지닌 남성에 한해서 고차원적 존재에 대한 신념을 강화시킨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으며 자유의지를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고 할 때 소위 뇌의 준비전위(Readiness Potential)는 결국 뉴런의 노이즈(neuronal noise)일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실험과 논문은 서로를 논박하고 있으며,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이 이 책에서 지적된다. 실제로 자아, 정체성,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과 사고는 우리에게 도덕적 책임과 인간 존엄성 등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재하는지 아닌지는 실험으로 증명될 수 없다. 다만 그렇기에 말콤 지브스도 리벳이나 핼릿 실험을 설명하고 나서, 그것이 지니는 과학적 함의가 아닌 도덕적 함의에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말콤 지브스는 fMRI를 통해 기도나 명상 혹은 임사체험시에 나타나는 뇌에서 활동하는 뉴런의 산소 소모량을 측정하는 일들이 밝힌 바대로, 실제 그런 것으로는 영혼에 대해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뇌 영상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나 행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나 방증이 될 수 없는거야(194쪽)."

필자가 알기에, 스위스 신경과학자 올라프 블란케는 누군가의 좌측 측두정엽에 자극을 주어 '그림자 인간(shadow person)'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동시에 말콤 지브스는 구약의 사무엘을 불러오는 엔돌의 여인이나 바울의 삼층천 신비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성서 해석을 언급하면서, 기독교 인간론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육체의 부활'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간의 영성과 종교의 입장이 다뤄진다.

말콤 지브스에 의하면, 종교가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 즉 하나님의 유무는 과학 연구로 증명될 수도, 부정될 수도 없다.

진규선 목사
서평가 · 번역가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북스리뷰]

바울의 '자족의 비결'

성경이 말하는 만족과 자족의 의미

행복의 비결
조엘 비키 외
TnD북스 | 200쪽

〈자족 vs 불만족〉은 TnD북스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의 비결' 시리즈 첫번째 작품이다.

이 책은 불평불만과 불만족이 넘쳐나는 시대에, 성경이 가르치는 만족과 자족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 자족(自足, self-sufficiency)이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스스로 만족하게 여김'이라는 의미이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니(빌4:11)'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교회용어사전에 따르면 자족은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며, 그리스도께서 그 인격과 삶 속에 사시는 자의 한 특징으로서(고후 4:7~15),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딤전 6:6~8)고 한다.

'영적 거장들이 말하는'이라는 수식어처럼, J. C. 라일, J. R. 밀러, 토마스 보스톤, 윌리엄 플루머, 제러마이어 버로스, 토마스 제이콤, 조나단 에드워즈, 윌리엄 에임스 등이 '자족'을 주제로 쓴 글들을 모았다.

J. C. 라일에게 '자족'이 '의무'일 수 있는 것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 때문이다. 건강과 돈, 재산, 우정 같은 이 땅의 좋은 것들도,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 배우자도 결국 서로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

자족을 위해선 겸손과 자기 이해, 자신의 비열함과 부패함을 철저하게 직시하는 것 등이 뿌리가 돼야 한다. 그리고 결코 자족해선 안 될 것이 있는데, '적은 경건, 적은 믿음, 적은 소망, 적은 은혜'이다. 특히 절대로 만족하고 자족해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햇볕을 쬐던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막아선 알렉산더 대왕처럼 "우리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에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인 자족의 비결은 무엇일까. J. R. 밀러에 따르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빌4:11)"라는 노년의 바울이 했던 고백 속에 그 힌트가 있다. 바울은 자족하도록 기적적인 도움을 받은 것도, 사도라서 특별한 능력이나 은혜를 부여받은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족을 어떻게 배우는가? "불가피한 재난과 역경을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너무 쉽사리 역경에 굴복해서도, 풀 죽어서 여러 상황들로부터 물러서서도 안 된다. 그리고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갖는 불만의 대부분은 나보다 더 특혜를 받은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데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배우고, 천국에 보물을 쌓으며 삶의 원동력을 그곳에 두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외에도 '자족'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의 글들이 '행복의 비결'을 전해주고 있다. 책의 기고자 대부분은 16~18세기에 살았던 청교도'들로서, 책은 본문에 앞서 〈청교도 신앙의 모든 것〉, 〈칼빈주의〉 등의 저자 조엘 비키(Joel Beeke) 퓨리탄리폼드신학교 총장의 청교도에 대한 해설의 글을 싣고 있다.

조엘 비키 총장은 청교도의 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으로 △성경이 삶을 빚어가도록 돕는다 △교리를 일상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방법을 보여 준다 △삼위일체 신학을 가르쳐 준다 △성도가 고난을 감당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진정한 영성을 설명해 준다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 준다 △설교의 중요성과 으뜸됨을 가르쳐 준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방법을 보여 준다 등을 꼽으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책을 기획한 TnD북스 김영욱 대표는 "원고를 읽으면서, 제가 먼저 자족의 레슨을 기쁨으로 시작하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며 "내가 처한 형편과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이유를 찾고 그 해결점은 내 안에서 찾으려 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점은 바깥, 곧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려 노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불평불만과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엄습해 올 때, 꺼내 읽을 책이다.

이대웅 기자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October 27, 2016 Vol. 74

A multiethnic prayer gathering took place at the Anaheim Convention Center on October 23 for three hours beginning at 5 PM, under the theme, 'Heal Our Land'.

Multi-Ethnic Leaders Pray for the Nation: 'Lord, Bring Revival'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The multiethnic prayer gathering that Korean church leaders in the Southern California region had hosted last year has taken place once again at the Anaheim Convention Center. This year, similar to the last, attendees prayed fervently for repentance and restoration, revival and missions, social justice, and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among other topics. Unlike last year's gathering however, during which many of the leaders mentioned the issue of same-sex marriage, this year's gathering had a heavy emphasis on the upcoming elections. The organizers had also pushed the event up to October, which was previously scheduled to take place in November.

"It appears that the next president could appoint up to four Supreme Court Justices at most," said Young Min Eom, pastor of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The future of America is dependent on the upcoming elections."

"Raise up leaders who only kneel before you," prayed Woo Kyung Yoon, the president of the Orange County Association of Lay Members.

Members of several ethnic communities led prayers during the event. Dion Elmore of the National Day of Prayer led those who gathered into a prayer that America would return to God's word. Jeff King, the president of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which is involved with advocacy efforts for persecuted Christians, prayed on behalf of churches that are persecuted world wide. Fred Berry, an African American pastor, shared a short message on the Azusa Street revival and prayed in tongue. Willie Holmes, a pastor who has been involved in African American human rights movements in the Los Angeles region, led a prayer on racial reconciliation.

The highlight of this portion of the event was Kato Dawood, an Egyptian pastor. Dawood, who said he accepted the gospel through missionaries in Egypt, shared a report on the revival that is happening in the Middle East, and emphasized that "America must send even more missionaries."

People who would not have heard the gospel for at least another 100 years are currently being exposed to the gospel due to the persecution they face from IS, Dawood said. Currently, refugees who are abandoning their homes to flee from IS are receiving Christ in the Middle East.

Korean American pastors were also among those who led prayers. Stephen Chong of Revival Church, Jeff Hyun of Sa-Rang Community Church, Shine Kim of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Young Lee of SOON Movement, Dennis Cole of Thanksgiving Church, and others led prayers on a diverse range of top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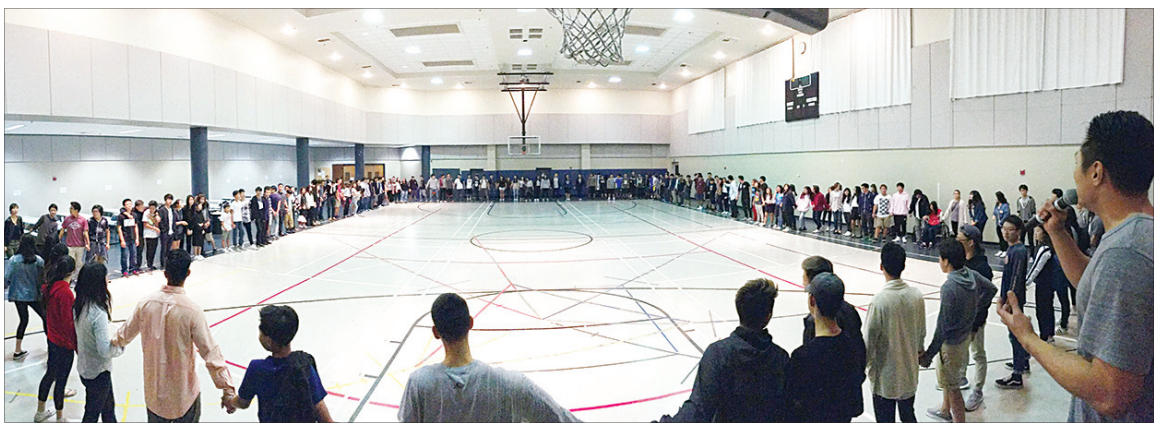
Among 28 individuals who led prayers, Woo Kyung Yoon was the only female. Most were Korean pastors who serve in the Orange County region, and a minority were pastors who serve in the Los Angeles region. Six of those who led prayers were lay leaders.

This year's prayer gathering saw a lesser turnout than that of last year, with some 1,500 in attendance.

Organizers invited many elected officials to the gathering but only one — Assemblywoman Young Kim — attended. Attendees raised their hands in prayer for a successful assembly and re-election.

The prayer event also included a time of expressing gratitude towards the leaders of the 'Line in the Sand' prayer gatherings who had hosted the multi-ethnic prayer gatherings at the Rose Bowl in 2011 and the Verizon Wireless Amphitheater in 2014.

"This year, the year in which the presidential elections will take place, is a time in which we need God's compassion and revival more than any other," Paul Gihong Han, who led the organizing of this prayer event, said. "When the churches, pastors, and congregants who represent all of the ethnic communities residing in Southern California repent and pray on behalf of the crisis our nation is facing, I have confidence that God will bring a great revival, and that he will heal and restore this land."



Youth ministries of six churches in Los Angeles came together to worship on October 14 at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Photo courtesy of James Lee)

Youth Ministries of Six Los Angeles Churches Come Together to Worship

BY RACHAEL LE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f six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Los Angeles came together for a night of worship, food, and games on October 14 at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About 150 students and 30 teachers from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of Los Angeles (YNPC), Oriental Mission Church,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GCJC), Lighthouse Mission Church, and Choong Hyun Mission Church gathered to worship under the theme, 'Ekklesia - To Be Like Our God in Our Relationship.' Pastor Alex Han from GCJC was featured as the main speaker.

"The churches got together to promote unity of the youth in Los Angeles, and to kick off a basketball tournament that begins on October 15," said Pastor James Lee of YNPC. Five out of the six churches that worshipped together will be participating in a joint church basketball tournament, with the exception of Choong Hyun and including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The churches plan to have another worship night together at the conclusion of the tournament.

Having such a joint youth worship night was meaningful because it allowed the youth to witness different styles of worship in different churches, Lee said, and also allowed them to "experience the closeness of people who come together in the name of Jesus."

KCM to Host Joint Campus Worship Night for Collegians: 'Come Be Renewed by the Gospel'

BY RACHAEL LEE

Korean American Campus Mission (KCM) will be hosting its third 'Gospel Renewal Night,' one of the first joint campus worship events to take place during the school year.

The event will take place on October 29 from 6 PM to 9 PM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Pastor Steve 'Bang' Lee of Living Hope will be featured as the main speaker, and Kay Lim will be leading worship.

"We are hoping to bring all eight of our campuses together for a time to have them be renewed by the Gospel and to be able to come worship together," said Sam Bay of KCM. "Even though it is a KCM event, anyone and everyone is invited to come."

Eugene Park, the creative director of KCM, said last year that the Gospel Renewal Night works toward maintaining three priorities of the college ministry: "To be missional on the college campus, to be missional overseas, and to continue building disciples."

The last two Gospel Renewal Nights have seen hundreds of college students in attendance, as some 500 attended the first event and some 650 attended the second.

KCM is one of the largest Korean American college ministries in the Southern California region, and has a presence in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including UC Irvine, UCLA, UC Riverside, UC Santa Barbara, UC San Diego, Biola University, Pepperdine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Other than the Gospel Renewal Night, KCM also hosts other joint campus events such as the Fall Sports Festival, and annual summer mission trips, among others.

Most Pastors Encourage Congregants to Invite Friends to Church Events on Halloween

Building relationships with trick-or-treating neighbors and passing out gospel tracts also encouraged by pastors

BY RACHAEL LEE

Whether Christians or pastors appreciate the holiday or not, Halloween will be celebrated by most Americans. A National Retail Federation survey published in September found that 69 percent of Americans plan to celebrate Halloween in 2016.

A recent LifeWay Research study found that while a small minority of pastors still prefer to avoid Halloween altogether, most pastors encourage their church members to attend and invite friends to a church-hosted event.

The study, which was released on Tuesday, found that about two-thirds (67 percent) of 1,000 Protestant senior pastors said they encourage congregants to invite their friends and neighbors to a church-hosted alternative to Halloween such as a 'fall festival.'

More than half of the survey respondents said they encourage congregants to "build relationships with neighbors who trick-or-treat" (52 percent), and more than a quarter encouraged church members to give gospel tracts to those who trick-or-treat (26 percent).

A minority of respondents said they encourage church members to avoid the holiday completely (8 percent).

The study found some differences along denominational lines. Holiness pastors were most likely to encourage church members to invite people to a church-hosted event (82 percent), followed by Baptist pastors (77 percent), Pentecostal pastors (75 percent), and Methodist pastors (73 percent).

Meanwhile, Baptist pastors were most likely to encourage members to give gospel tracts to trick-or-treaters (47 percent), while smaller proportions of evangelical (32 percent) and mainline (15 percent) pastors were likely to do the same.

"With so many people celebrating Halloween, this one day has more interaction among neighbors across America than any other day," said Scott McConnell, the executive director of LifeWay Research.

"People actually want to see each other at their doors. So it's only natural that pastors encourage their congregations to invest in these relationships."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30 AM &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Born Again Christians View Candidates' Personal Qualities Differently, Says Barna Study

BY CHRISTINE KIM

Born again Christians have different opinions on the personal qualities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s, according to a recent Barna Group survey.

The survey asked respondents which presidential candidate better embodies eight qualities: "presidential," "respected by other leaders," "able to work with people who have different views," "effective communicator," "strategic thinker," "trustworthy," "patriotic," and "authentically Christian."

The overall voter population views Hillary Clinton to be associated with six out of eight of the qualities, the survey results revealed.

Respondents viewed Clinton to be more presidential (42 percent for Clinton, 23 percent for Trump); respected by other leaders (39 percent and 17 percent respectively); able to work with people who have different views (44 percent and 22 percent respectively); an effective communicator (36 percent and 25 percent, respectively); a strategic thinker (35 percent and 30 percent); and authentically Christian (18 percent and 12 percent).

Both candidates were deemed by respondents to be equally trustworthy (25 percent) and patriotic (32 percent for Clinton, 29 percent for Trump).

However, a large share of voters say that neither candidate is trustworthy, Christian (40 percent), or respected by other leaders (30 percent).

Born again Christians express different views, deeming Trump as better exhibiting four of the eight attributes (trustworthy, effective communicator, strategic thinker, and patriotic). Clinton, on the other hand, is not seen as associated with any of the eight qualities.

One-third of born-again voters say neither of the candidates are presidential, trustworthy, or respected by other leaders and half say neither are "authentically Christian."

"We have not had an election in more than a half-century in which such large proportions of voters were turned off by both candidates," says George Barna, the founder of Barna Group. "Currently, six out of ten Americans plan to vote for a candidate they don't care for primarily because they are so disgusted by the other option. This election represents an ideal opportunity for a third-party candidate to burst onto the scene, but the data show that few voters like the third-party candidates any better."

According to the survey, a small number of voters are voting for a candidate they actually accept.

Four-in-ten voters who say they are voting for Clinton are voting for her because they actually like her. One-third say they are voting for her because of their dislike for Trump and 27 percent are doing so because they view her as the "lesser of two evils."

Similarly for Trump, one-third are voting for him because they actually like him (33 percent), four-in-ten because they dislike Clinton, and 23 percent because they see him as the "lesser of two evils."

World Relief Partners with Churches Across the U.S. to Resettle Refugees

BY CHRISTINE KIM

World Relief, a Christian humanitarian organization, resettled in the United States nearly twice the number of refugees than usual.

In the past 40 years, 270,000 refugee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resettled in the U.S. through World Relief, which resettled 650 refugees a month on average.

In September, World Relief settled 1,400 refugees through churches and its 26 offices across the country. In the past year, the organization has worked with 9,759 refugees, the largest number of refugees to go through its office since 1999, according to Christianity Today, having partnered with 1,180 congregations.

A woman and two children walk along a border crossing between Serbia and Croatia, where thousands of refugees traveled daily on their journey to safety. (Photo: Trocaire/Flickr/CC)

World Relief is one of nine organizations authorized by the federal government to help resettle refugees. Others include Church World Service, Hebrew Immigrant Aid Society (HIAS), Episcopal Migration Ministries, Lutheran Immigration and Refugee Service, and the U.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President of World Relief Scott Arbeiter was invited to the Summit on Refugees hosted by President Obama in late September where world leaders gathered to discuss funding for humanitarian organizations and ways to increase the number of refugee resettlements.

"Since my time at the UN, I've been overwhelmed by the amount of attention refugees have been receiving in the news. At times I've felt discouraged, as voices of fear have tried to convince us that refugees should be seen only as a threat," Arbeiter says on the World Relief website. "But other times I've been profoundly encouraged, as voices of compassion and hope have risen up. These voices have reminded us that not only is it a moral and Scriptural imperative that we welcome refugees, but also that refugees have the potential to contribute to and enrich our country in countless ways. It's simply unthinkable that we wouldn't welcome refugees."

At the Summit on Refugees, President Obama announced that the U.S. will accept 110,000 refugees in fiscal year 2017 which began on October 1.

Dozens of Christians Killed by Fulani Herdsmen in Multiple Attacks in Nigeria

About 48 Christians were massacred by Fulani herdsmen in Nigeria in separate attacks in the months of October and September, according to media reports.

On October 15, hundreds of herdsmen arrived in Godogodo Chiefdom in the Sanga Local Government Area (LGA) in northwestern Kaduna state and slaughtered about 40 people with firearms, machetes, and by setting buildings on fire. In an earlier attack in the same area in September, the herdsmen killed eight Christians and injured several others.

"Godogodo communities once again came under very fierce, terrifying, brutal, savage and barbarous attack by Fulani herdsmen without provocation of any nature from Saturday 15th October, 2016, to Sunday afternoon," said Solomon Musa, an attorney and president of the Southern Kaduna People's Union (SOKAPU).

The attack was centered on the Jama'a Local Government Area where many villages were raided.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Nigeria (CSW-N) reported that the herders opened indiscriminate fire in the LGA, forcing men to hide in the forests while women and children hid inside their homes. The herdsmen then set fire to the buildings which killed ten women and two children. In a nearby village, they killed two people and seriously wounded three others.

Pastor Thomas Akut of Evangelical Church Winning All (ECWA) in Godogodo told Morning Star News that it seemed to be a jihadist war against Christians. He said that the assault left all 245 church members displaced.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displaced in the Christian community, with their houses and places of worship burnt and destroyed. Lawmakers led a motion in Kaduna state legislature to take urgent steps to restore peace in the area.

"Why should some people continue to slaughter others for some reasons as if their lives don't matter? We are all Nigerians; some people should not see their lives as superior or having more value than others," said Simon Arabo, one of the lawmakers.

Church Restored in Christian Town Near Mosul as Restoration Efforts Continue

A Christian town near Mosul was freed from ISIS on October 20 by Iraqi forces after its two-year captivity under militant control. Before the militant invasion in 2015, the town had a population of 15,000.

Bartella, located about nine miles from Mosul, has churches which were desecrated by ISIS, with graffiti written across the walls, interiors burnt with fire, and graves opened in the backyard.

"The church, a foundation and a community gathering place for years, has been damaged and left in ruins. No doubt the restoration work will commence once its citizens start returning," an Assyrian Christian group, A Demand For Action (ADFA), said as it updated Christian Today about the situation in Bartella where the group is cleaning up the churches.

"This marks a very important step towards Assyrian Christians returning to their homes and no longer living as IDPS in camps. Bartella is returned to its owners once again."

Nineveh Plains Forces, a Christian militia, fighting ISIS alongside the Iraqi Special Forces, put the cross back up again on the Mart Shmony Syriac Orthodox Church.

It took two days for the Iraqi elite Golden Division free Bartella of the ISIS militants as they posed tough resistance with suicide bombers and cars loaded with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EDs).

"Perhaps they did not want to give it up so easily because of its religious significance," said Capt. Mustapha Muhsen.

Bartella is one of the 50 towns surrounding Mosul, which was conquered since the battle for Mosul began last week. The forces are now clearing up the IEDs left behind by ISIS on roadsides, inside churches, and in houses and tunnels.

"The scale of the IED problem is huge here, and will take a very long time to deal with," one soldier told The Australian. "We have got very little specialist equipment. We don't even use mine detectors as the ones we were issued with are faulty. Most of the time it comes down to using two things: our eyes and our fingers."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가을맞이 특별SALE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